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6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하)

정답 및 해설

## PART 1 | 현대 소설

### 0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본문 010~01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서술한 작품으로 구보의 내적 갈등 외에 특별한 갈등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전지적 서술자가 주인공 구보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의식과 그 의식에 비친 바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 05 인물의 내면 묘사와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사건 전개 속도가 매우 느리다.
- 06 시인마저 황금광으로 나서는 황금광 시대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 그러한 변화를 통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구보는 동대문행 차를 탄 후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디를 가냐고 묻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는다.
- 11 구보는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 즉 경성역에 자주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12 구보가 경성역에 간 이유는 고독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16 구보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신사를 보며 그의 신상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을 상상하고 있을 뿐, 그가 금광 중개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④ 4 ① 5 ② 6 도회의 향구 7 이 글에는 만연체 문장과 심포의 빈번한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만연체 문장은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심포의 잦은 사용은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인물이 지닌 의식의 전개 양상에 독자가 더욱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특징은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 1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구보의 시선과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가 구보를 '그'라고 지칭하며 이야기 밖에서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의 주체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로 고정되어 있다. ④ 서술자가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요약적 설명이 아니라 구보의 관찰과 사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서술자는 구보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 주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 2 구보는 개찰구 앞에서 무직자로 보이는 사내들이 금광 중개상일 것이라 확신하며 황금광 시대라는 사행적 분위기와 금광 열풍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뿐, 무직자들이 넘쳐나는 당대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구보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고, 내려야 할 곳도 설불리 정하지 못했다. ② 남대문 근처에서 웅송그리고 앉아 있는 지게꾼들의 맥없는 모양을 본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경성역에 가서 고독을 피하고자 하였다. ③ 경성역 삼등 대합실에서 대화도 없이 자신들의 사무에만 열중하며 신뢰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한 구보는 오히려 고독이 그곳에 있었다고 느낀다. 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교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구보는 중화 동창이 시킨 가루베스를 외설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3 '캡 쓰고 린네르 쫄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눈에서 구보는 우울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따라서 '사내'의 눈에 지식인의 우울과 회의가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바제도씨병'을 앓는 노동자는 병든 육체의 일면을, 이 사람을 경계하며 소외시키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는 정신적 불건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고 흥미를 느낀 구보가 꺼내 든 '대학 노트'는 관찰자이자 기록하는 자로서의 소설가 구보의 역할을 보여 준다. ② 구보는 삼등 대합실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또한 남을 믿지 못하는 익명적 인간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드난살이로 삶의 즐거움을 잃고 경직되어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생기 없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⑤ 구보는 사람들에게서 병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 역시 병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 4 [A]에서 구보는 '~ 찾아가는지 모른다.', '~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으)르 게다.'와 같은 추추의 표현을 활용하여 노파와 신사에 대해 상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짧은 문장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고, 인물의 내면 변화를 박진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경향이 없고, 이를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보가 경험하고 상상한 것을 서술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5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인간미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지만, 이를 통해 구보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정처 없이 전차를 탄 구보의 행위를 통해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상실한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함을 보여 준다. ③ 사람들이 병자 옆에 앉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울까 봐 꺼리는 모습으로, 현대인의 비인간성을 보여 준다. ④ 물질적 욕망에 휩쓸려 금광 열풍에 가담한 문인들의 모습을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⑤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인물도 연애를 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 구보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이다.

### 02 인간 문제

본문 018~02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05 감상적 서술을 배제하고 사실적 묘사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06 주로 타작마당이라는 특정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대립과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2 덕호는 온정적인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다.
- 15 입도 차압은 법과 제도가 지배층 편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 16 개똥이는 덕호가 빗 말을 꺼내기 전부터 불안해하며 수동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인다.
- 18 수탈당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농민의 심리적 괴로움과 억울함이 무게감으로 전이된 표현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④ 5 ① 6 벼섬은 노동의 결실이자 수탈의 대상으로, 수확의 기쁨과 빗 청산으로 인한 절망을 대비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1 농민들을 ‘그들’로 묶어 집단적 반응과 감정을 제시함으로써 수탈의 고통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계층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여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건의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탈의 현장과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② 개똥이와 풍헌이 당한 일을 병치하고 있지만, 두 사건이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③ 특정 인물 간의 지속된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수탈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⑤ 미성숙한 서술자의 제한된 시선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전지적 서술자가 객관적·사실적 서술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2 개똥이는 결국 수탈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농민들은 타작마당에서 풍작에 기뻐하면서도 덕호의 눈치를 보며 빗 이야기가 나올까 봐 불안에 떨며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 ② 농민들의 집단적 분노와 저항은 순사의 개입으로 좌절된다. ④ 덕호는 겉으로는 농민들의 편의를 바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쌀값이 오를 것을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위선적인 면모를 보인다. ⑤ 개똥 어머니는 덕호의 말에 감격하여 머리를 숙이며, 덕호의 은혜를 몰라주는 아들과 동무들을 원망한다.

- 3 덕호의 ‘회계’는 겉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민지 농촌의 가혹한 수탈 구조를 폭로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그의 합리적 태도를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지주의 명령에 따라 노동의 결과물(벼섬)이 즉각 이동하는 장면은 농촌 내 공고한 지배-피지배의 권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② 가해자인 지주를 ‘후한 어른’으로 칭송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피지배층의 의식 속에 내면화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③ 법을 집행하는 집달리가 차압 편지를 꽂는 행위는 국가 권력과 제도가 지주의 수탈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고발하는 것이다. ⑤ 벼섬의 물리적 무게를 심리적 고통으로 치환하여 탄식하는 행동은 개인적 불만을 넘어 피착취 계급으로서 느끼는 집단적 분노를 형상화한 것이다.

- 4 이 글의 ‘나라 더미’는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했지만 지주에게 뺏기는 대상이며, <보기>의 ‘무명’ 역시 눈결같이 곱게 짜 내었으나 아전(황두)에게 뺏기는 대상으로, ‘나라 더미’와 ‘새로 짜 낸 무명’ 모두 하층민의 노동 결과물이 지배 구조에 의해 수탈당하는 현실

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입도 차압’과 <보기>의 ‘세곡선’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도적 수탈 정치이다. ② 이 글의 덕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선을 떠는 자주이고, <보기>의 황두는 무명을 뺏어 가는 아전으로, 두 인물을 모두 수탈의 주체이다. ③ 이 글의 ‘회계’는 고리대에 기반한 착취이며, <보기>의 ‘세금 독촉’은 누전(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에 대한 부당한 징수로, 공정한 계약 관계라 볼 수 없다. ⑤ 이 글의 개똥이는 벼섬의 무게에 분노를 느끼며 저항의 기미를 보이고, <보기>의 화자 역시 가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운명 탓으로 돌리며 체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5 풍헌은 자신의 눈에 쏙힌 차압 편지를 보고도 그 의미를 몰라 당황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강제력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농촌 공동체 외부에서 온 양복쟁이와 집달리는 국가 권력과 법을 앞세워 농민을 억압하는 외부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③ 벼를 베기도 전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은 농민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조차 만져 볼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상징한다. ④ 개똥이가 입도 차압을 당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풍헌이 차압을 당해 벼를 베지 못하게 된 것은 개똥이가 입도 차압을 당하기 전의 상황이다. ⑤ 입도 차압은 말 그대로 눈에 서 있는 곡식을 압류하여 수확권을 박탈하는 식민지 수탈의 법적 조치이다.

**03 치속**

본문 026~03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나’가 서술자이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07 속어나 비어는 작품의 사실성을 드러내는 요소일 뿐, 인물 간의 인식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 14 ‘나’는 아저씨가 말하는 세상 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한다.
- 15 ‘나’와 아저씨는 세상 물정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아저씨는 ‘나’의 생활 태도를 못마땅해한다.
- 17 ‘나’가 아저씨를 비판하고 조롱할 뿐, 아저씨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② 4 ④ 5 ⑤ 6 ① 칠전팔기, ⑩ 분투노력 7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고생’을 ‘낙’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생하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아저씨를 통해 자신의 무위와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한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1 ‘나’는 아저씨의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어리석음이 폭로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인물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게 한다.

**오답 해설** ① 서술 시점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아버지에 대한 ‘나’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독자의 공감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가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구어체의 사용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뒷말미를 드러내며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을 뿐, 대립과 갈등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가 아버지를 관찰하여 독백하듯이 서술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통찰과 반성 없이 주어진 현실에만 적당히 맞춰 살아가려는 ‘나’가 부정적인 인물이며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인물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서술자인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④ 지적으로 열등한 ‘나’의 시점으로 그보다 우월한 아버지를 평가하여 풍자적 효과를 얻고 있다. ⑤ ‘나’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나’는 세상 물정을 세상의 형편 정도로 인식하고 식민지 현실에 충실히 적응해서 성공하기 위해 분투노력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다르게 인식하며 ‘나’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나’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나’와 아버지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성명도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타이르며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도리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나’는 환갑까지 십만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③ ‘나’는 지루지루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분투노력해 가면 이 세상일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다이쇼의 신용을 받기 위해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고생하는 아주머니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지내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버지가 고생하는 아주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주머니의 고생에 대하여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라고 말한다. 이는 고생하는 아주머니를 외면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살아간 당시 지식인의 일면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고 일본인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것은 민족성과 주체성을 잃은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세상 물정에 대한 대화를 통해 ‘나’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상과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아버지는 식민지 상태의 부조리한 현실에서는 계획이나 기회에 대한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일제 강점의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여 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04 나룻배 이야기

본문 033~03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간략히 제시되고 있고, 주로 서술자의 서술이나 인물의 독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05** 이 글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여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11** 순녀는 천달의 죽음 소식에 피나는 울음을 퍼뜨리고 있으므로, 천달의 죽음에 담담했다고 할 수 없다.
- 15** 두 사람은 삼바우가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배를 몰고 가자 화를 내고 있을 뿐, 삼바우에게 배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고 있다.
- 17** 삼바우가 두 사람을 태우지 않은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④ 4 ② 5 ① 6 ⑤ 7 ④

**1**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를 통해, 서술자가 삼바우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를 통해, 서술자가 외지 사람들을 태우지 않은 것에 대해 느끼는 삼바우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풍자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은 이야기(사건)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교체되지는 않고 있다. ③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서술되지는 않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인물의 독백이 드러나 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은 찾아볼 수 없다.

**2** 삼바우는 까만 그림자 두 개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라며 그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삼바우가 강 저편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아들 용팔이가 돌아왔다고 확신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순녀는 남편인 천달의 전사 소식에 ‘피나는 울음’을 울고 있고, 남편의 유골을 가지러 갈 때에도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과 삼바우의 독백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 또 누구 데려갈라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를 통해, 양 생원네 식구들은 읍내로 가서 천달의 유골이 담긴 상자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이 배를 타러 오자, 그들이 또 마을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이 배를 탈 수 없도록 뱃길을 끊는 행동을 하고 있다.

**3**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아직 어린아이로, 가족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 [A]에서는 읍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왜 읍내로 가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의 계속되는 물음과, 그 물음에 어떤 말도 해 줄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철없는 대열의 행동은 전쟁으로 구성원을 잃은 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열이는 자신의 물음에 답이 없는 엄마와 할아버지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을 뿐, 엄마와 할아버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② 대열이가 아버지의 유골을 가지러 가는 상황을 모르고 자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을 통해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와 할아버지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③ 엄마와 할아버지는 대열이의 물음에 침묵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묵은 천달이의 죽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엄마와 할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대열이가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무겁고 어두운 작중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는 않다.

**4**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를 통해, 천달이의 전사 소식으로 인해 뒤숭숭해진 마을 분위기를 밤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밤’은 시간적 배경으로 양생원네 식구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비극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울음소리’는 손녀의 남편인 천달의 사망 소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손녀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읍내’로 간 양생원네가 받은 네모 반듯한 상자가 천달의 유골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읍내’는 천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④ ‘빌건 불길’은 천달의 유골을 들고 마을로 돌아오는 양생원네 가족의 분노와 슬픔, 한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까만 그림자’는 총을 메고 있는 사람과 양복쟁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바우는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라 생각하여, 뱃길을 끊어 버리고 있다. 따라서 ‘까만 그림자’는 삼바우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5** 이 글에서 삼바우는 나룻배를 모는 뱃사공으로, 나룻배를 통해 강안의 사람들을 강 밖 읍내로 데려다 주고, 다시 읍내에 있는 사람들을 강 안으로 데려다 주고 있다. 따라서 삼바우는 강 안과 강 밖을 이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삼바우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삼바우는 강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강 밖의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우편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삼바우가 마을 사람들을 외지로 실어 나르고는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외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을 통해 인물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삼바우가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6** 양생원은 삼바우가 천달의 유골이 든 상자를 들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 유골을 남의 손에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양생원이 삼바우에 대해 원망하는 심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유골 상자를 들려 하는 삼바우의 배려를 거절하는 것을 원망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손녀는 읍내에 가서 남편인 천달의 유골을 가지고 배를 탄 상황으로, 손녀의 입술이 ‘까맣게 질려 있’는 외양 묘사는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그녀의 심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는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삼바우가 그냥 가 버리는 것을 보고 배를 대지 않는다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쇠대질을 해 썰’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가 버린 삼바우에 대해 화가 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삼바우는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을 청년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생

각하며 그들을 태우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그러면서 삼바우는 ‘땀방울을 허겁으로 썩 활으며 고소하게 웃’고 있는데, 이는 그들을 태우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대열이는 읍내에 뭐 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자, 울상이 되어 침철거리다가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대열의 행동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해 화가 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을 태우지 않으려고 배를 돌리면서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노를 젓고 있는데, 이는 외지 사람들이 배를 타지 못하도록 노를 있는 힘껏 젓는 삼바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바우의 이러한 모습을 비극의 전달자 역할을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외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손녀는 남편인 천달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나는 울음’을 쏟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손녀의 울음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손녀의 비극적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이 마을 청년들을 다시 전쟁터로 보낼 것이라 여겨,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 길을 끊고 있는데, 이는 삼바우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③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이 오자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고 있다. 이는 외지 사람들이 마을 청년들을 데려가는 상황에서, 이를 비꿀 수 없다는 삼바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두칠이가 ‘그 꼬라지’로 돌아오고(부상을 당해 흉측한 얼굴로 돌아옴), 천달이 전사하여 배다귀로 돌아온 것은 한 마을에 닥친 비극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삼바우는 배를 모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모두 목격하고 있다.

## 05 불신 시대

본문 040~04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진영의 시각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03** 작가 자신의 체험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지만, 작가가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 07**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상황 내에서 내면적으로 극복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 08** 이야기 속 계절이 겨울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별다른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이로써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지 않다.
- 09** 진영은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발병하였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얻은 신체적 질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11** 진영이 의사들에게 환멸을 느낀 것은 맞지만, 가짜 주사약을 진짜로 판매했던 것은 거리의 상인들이지 의사가 아니다.
- 13** 빈민굴에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목격한 진영은 자신의 감정과 고민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것으로 진영의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 진영은 스님이 적은 시주 때문에 무안을 준 것이 기분 나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문수의 위패를 함부로 다루었는지 알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진영이 화를 냈다는 내용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① 3 ⑤ 4 ③ 5 ⑤ 6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 7 진영이 불신 시대에 맞서 의지적인 태도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억을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인물의 성격 또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진영'이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밤마다 귤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 진영의 주변을 짝 싸는 것이었다.'를 통해 인물의 의식 속의 장면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인물이 고통받고 있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산에는 개막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집들이 마치 진땀을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와 같이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신을 주는 상황으로 의사들은 전쟁 이후의 속물적인 인간 군상을 대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상인들은 가짜 주사약을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며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③ 어머니는 진영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진영은 불신 시대가 남긴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⑤ 진영은 문수의 위패를 절에 모신 것에 불만을 표현한 아주머니의 말에 대해 대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

3 빈민굴에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목격한 진영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울고 싶고 크게 외치고 싶은 자신의 감정과 고민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답 해설** ① 전쟁과 상관 없이 폐결핵을 방지하여 다른 병까지 병발하였다. ② 방문한 병원들을 통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③ 아주머니는 진영에게 빌렸던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 환을 가지고 온 것이다. ④ 천주교인인 아주머니는 진영이 절에 위패를 맡긴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했다.

4 중은 진영에게 시주가 적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티뜨리며 무안을 주었다. 이는 종교마저도 타락한 배금주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진영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중이 비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이 시주를 적게 한 것에 대해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④ 중의 대사를 통해 배금주의 사회상을 폭로하는 것이지, 소외된 존재들의 곤궁하고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다. ⑤ 진영의 시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현실의 어려움에 종교마저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5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태우는 것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세태 속에서 인간이 꿈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태연히 가짜 주사약을 팔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은 전쟁 이후 나타나는 인간의 부조리함을 잘 보여 준다. ② 전쟁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산에 빈민굴을 형성한 것은 전쟁 이후에 극심하고 처참했던 사회적 상황을 잘 보여 준다. ③ 육신이 병 들고 정신이 해체되어 가는 진영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짐작하게 한다. ④ 진영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치료받는 것을 그만두고 만 것은 궁극적으로 병

원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는 전쟁 이후 인간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허무주의적 정서를 잘 보여 준다.

6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은 불신 시대가 진영에게 남긴 것으로, 진영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영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을 언급하며 불신 시대가 남긴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06 관부 연락선** 본문 047~06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혼잣말하는 듯이 서술하는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유태림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활용하여 안달영의 논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09 공산주의 교양회를 개최할 것을 기획한 사람은 안달영이다.

10 허봉도와 유태림은 안달영이 애국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논쟁한 것이 아니라, 교양회 개최와 창고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 논쟁하였다.

12 유태림은 독립된 조국의 정체는 국민 다수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4 안달영은 교양회를 개최했다가 "탄로 나면 깨끗이 죽지."라며 극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⑤ 4 ④ 5 ⑤ 6 창고를 빌려주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유태림과 안달영의 심리와 갈등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와 생각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③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⑤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2 '태림과는 같은 고향이라서 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허봉도'라고 하였으므로 유태림과 허봉도가 같은 고향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학병으로 끌려오지 않았느냐’는 안달영에 대한 허봉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③ ‘일본 병영 내에서’를 통해 허봉도, 안달영, 유태림이 일본 병영에 있는 학병임을 알 수 있다. ④ ‘태림은 그때 부대의 소모품 창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터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유태림의 말에 대해 안달영은 “그것이 돼먹지 않은 망상이란 거요.”라며 그의 생각을 폄하하고 무시하였다.

**3** 유태림은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아뇨?’ 등과 같이 안달영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활용하여 안달영의 논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유태림은 안달영의 말에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으므로, 안달영의 감정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유태림은 안달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므로, 안달영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유태림은 안달영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을 뿐, 안달영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있지 않다. ④ 유태림은 안달영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을 뿐, 그의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4** 사상 관계로 몇 번이나 감옥 출입을 한 것은 안달영의 이야기이므로, 이를 통해 유태림이 더 이상 사상 관계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허봉도는 유태림에게 창고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유태림을 불렀다. ② 유태림은 병영에서 공산주의 교양회를 열기 위해 창고를 빌려달라는 허봉도의 말과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③ 허봉도는 안달영을 애국자이며 사상가라고 칭하며 그의 사람 됨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유태림은 허봉도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생각할 여유를 달라면서 자리를 피했다.

**5**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순 없었으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를 통해 유태림이 조국으로 돌아가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유태림이 어떤 정당이나 조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지식인으로서 그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상해에서 지내고 있는 유태림의 생활을 통해 해방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유태림의 태도는 어떤 이념이나 정당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에 동조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는 이념적 중립을 선택한 이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떤 정당이나 어떤 조직에도 가담하지 않는 유태림에게 협박과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 07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본문 054~06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5** 인물이 겪는 갈등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중압감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원인만 알게 되었을 뿐, 해결 방안과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06** 액자식 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08** ‘나’가 통증의 원인이 틀니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1** ‘나’와 어머니는 오빠와의 만남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12** 오빠가 월부 책을 파는 사내인 것처럼 속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월부 책을 팔러 온 사내의 소리를 ‘나’가 오빠로 착각한 것이다.

**14** ‘나’는 최고급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동통을 느꼈다.

**16** ‘나’는 설희 엄마가 누릴 해방감과 자유로움에 부러움을 느낀 것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③ 4 ④ 5 ③ 6 ⑤ 7 ‘나’가 느낀 동통은 월북한 가족을 둔 사실로 인해 겪는 본단의 고통과 설희 엄마가 자유를 얻었다는 데 대한 선망과 질투의 감정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발현된 것이다.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상황에 대한 내면 심리를 주관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의 서술로 상황이 드러날 뿐,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④ ‘나’가 오빠 때문에 정보기관에 조사를 받은 일과 설희 엄마가 이민을 간 사건에는 순차가 있고, 이것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고, 주인공의 의식이 성숙하는 과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2** ‘그 여편네 설희 엄마는 지금쯤 어디를 날고 있을까? 제아무리 공중에 떠 있기로서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부터 벗어났기로서니 지금의 나만큼이야 가볍고 편할쎄.’라며 설희 엄마를 떠올리는 부분은 설희 엄마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 설희 엄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월부 책을 사라고 온 사내에 대해 ‘말이 그렇게 청신유수고 신수도 희멀결던데 고작 월부 장사밖에 해 먹을 게 없나, 쫓쫓’라며 그의 안타까운 처지를 언급하고 있다. ② 어머니는 ‘말이 지수지. 그놈이 벌써 마흔인데 그곳에 계집자식이 없을 리 없을 테니 이 예미 말을 들을까?’라며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정보기관의 기관원인 ‘그’는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라며 ‘나’가 말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기하고 있다. ⑤ ‘나’는 정보기관의 기관원인 ‘그’의 위치에 놀려 ‘어떡하건요 그야 당연히 시, 신고를 하거나 지수를 시켜야죠.’라며 대답하고 있다.

**3** ‘나’는 설희 엄마가 처한 처지와 자신이 느끼는 삶의 중압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동면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한 것일 뿐, 설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정보기관의 기관원을 통해 이북에 있을 오빠가 남파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② ‘나’와 어머니는 오빠가 간첩이 된 경우에 처해질 자신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차라리 오빠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④ 분수에 비해 고가인 틀니를 해 넣었는데도 통증이 생긴 것이다. ⑤ ‘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설희 엄마가 얻게 된 자유에 대해 질투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4** ‘나’와 어머니는 오빠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상이 무너질까

와 염려하고 있으며, 차라리 오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다. 오빠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을 더 염려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오빠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살펴보기 어렵고, 오히려 오빠로 인해 닥칠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② 가족인 '오빠'에 대한 안위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 ③ 친척이나 지인들이 겪은 고초에 대한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와 어머니가 정보기관에 보상을 받고 협조한 것은 아니다.

**5** 월부 책 장수의 방문을 오빠의 등장으로 착각한 '나'가 느끼는 불안감을 청각적 묘사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미각적 묘사나 후각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촉각적 묘사를 통해 '나'의 신체적 통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⑤ '나'가 경험한 전쟁 상황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6**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북 가족들에게 행해지는 감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단 현실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정신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가족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나'의 가족이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정보기관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간성에 대한 회복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④ 정보기관의 감시를 정치적 야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8 해벽**

본문 061~06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서술자는 '조'의 심리와 그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05 송산 꼭대기의 불빛은 공포, 위압, 불길함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 11 주민들 중에는 미군 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 16 '조'는 근대화 정책이 어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다.
- 19 '조'는 과거 자신의 직책들이 하잘것없는 허울들이라며 박차 버렸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④ 5 ⑤ 6 ③ 7 아만스런 광채

**1** 사포꽃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조'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송산의 모습을 일부 보여 주고 있으나, '조'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② '조'의 정서적 반응은 드러나지만, 외적 갈등의 심화와는 무관하다. ③ '조'의 내면은 드러나지만, '조'의 행동을 볼 때 회의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대화를 통해 갈등은 일부 드러나지만, 비극적 분위기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2** 송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사포꽃의 변화는 미군 부대가 주둔할 송산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 ② '조'는 마을의 변화에 담담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④ '조'는 어업에 기대어 살고자 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아들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⑤ '조'는 예전에 가졌던 직책을 잊고 현재의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3** ㉠은 폐항이 된 사포꽃을 살리기 위해 애쓰려는 '조'의 모습으로 '조'의 한탄이나 후회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조'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은 사포꽃이 다른 고장과 다른 까닭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③ ㉠에는 외세가 들어왔을 때 사포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조'의 걱정과 기대가 담겨 있다. ⑤ ㉠을 통해 '조'의 의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A]에는 '조'와 요상이를 비롯한 자식들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A]에서 과거의 일을 꺼내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예전에 봉합된 갈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A]에서 대화 도중 등장한 인물은 없으며,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도 않다.

**5** '조'는 자신이 역임했던 다양한 직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가 근대화 추종 세력과 대척점에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포꽃의 사람들은 미군 기지 건설에 동원되었다. ② '조'는 미군 부대 건설로 인해 벌어진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③ 쇠계마을을 포함한 사포꽃이 폐항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근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조'는 어업을 통해 자생하고자 하였다.

**6** 마을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원이 끊겨 걱정된 것이다. 그리고 '조'는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자력으로 살아남자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송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② 쇠계마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두고 마을은 두 패로 갈리었다. ④ 주민들은 정해진 노임을 정해진 날짜에 받고 있고, 이를 통해 마을에 생기가 돌게 되었다. ⑤ '조'는 미군 부대가 밝히는 불빛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09 미망**

본문 069~07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 글은 성장한 '나'의 회상에 의한 1인칭 서술 방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다.
- 04 '보도 연맹 가입증'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할머니의 모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06 이 글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기보다, 이념의 대립이 개인과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8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해학적으로 과장하고 있지 않다.
- 10 할머니는 며느리를 외면하고 딸의 집으로 떠나 있었으며, 아들의 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 11 아버지는 자수 이후에도 몰래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암시된다.
- 15 할머니는 끝까지 아들이 살아 있다고 믿으며 기다렸다.
- 16 통곡하는 인물은 고모이며, 어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⑤ 4 ⑤ 5 ④ 6 ⑤ 7 '어머니'는 생존을 위해 현실에 맞서는 적극적인 인간상이며, '할머니'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상이다.

- 1 이 글은 성장한 '나'의 회상을 통해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와 할머니의 고난, 분단 상황 속 개인적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 순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지는 않다. ② 인물 간의 대화가 생략되고 있지 않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④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2 아버지가 보도 연맹에 가입하여 당장의 위협을 모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몰래 활동을 계속한 정황이 드러나며, 전쟁 발발 후에는 예비 검속의 소문을 듣고 다시 자취를 감춘다. 따라서 '이후에는 가족에게 더 이상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남편의 죄의 활동 이후 반복적으로 연행과 폭행을 겪으며, 밤마다 들이닥칠지 모르는 순경들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지냈다. ② 할머니는 '간이 작아' 순경들의 출입이 잦아진 상황을 두려워하며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④ 울산에서 어머니가 구걸을 한 것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⑤ 고등학교 입학 날 밤 '나'는 어머니의 지난 삶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 3 [A]는 어머니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연행·폭력·가난·구걸 등 구체적 체험이 연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역사적 격변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각인되었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즉, 인물의 직접 발화를 통해 체험의 밀도와 현실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사건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며, 의도적 교란은 보이지 않는다. ②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기보다, 구체적 체험을 장황하게 서술하여 서사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③ 서술자의 해설이나 도덕적 논평은 개입되지 않고, 인물의 직접 발화로 제시된다. ④ 객관적 거리 유지가 아니라, 감정이 집약된 주관적 체험 진술에 가깝다.
- 4 ⑥는 할머니의 죽음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행동이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지 않으며,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전셋집 체험을 한 이후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는 이념의 대립이 개인의 일상에까지 침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아버지의 죄

의 활동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어머니를 외면하고 고모네 집으로 피신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으로써 어머니와 할머니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여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이후, 어머니의 매질에 억눌린 슬픔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깨닫는다.

- 5 '나'가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분단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은 상처의 극복보다 기억과 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의 실종 이후 가족은 빈곤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그 기억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② 울산에서의 구걸 체험은 이후에도 어머니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③ 할머니가 아들의 생존을 끝까지 믿는 태도는 상처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⑤ 보도 연맹 가입 이후에도 아버지는 다시 사라지며, 가족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 6 '모화 땅'은 보도 연맹 사건과 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이 전개되는 장소로, 가족의 해체와 생존의 위기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모화 땅'은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불행을 겪은 곳으로 역사적 비극을 상징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공간은 아니다. ②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간은 '울산'이다. ③ 아버지의 죄의 활동과 할머니의 외면으로 인해 어머니는 공포와 두려움 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상실감을 느낀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어머니가 '모화 땅'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모화 땅'은 가족의 삶의 터전으로 일상적 공간에 해당하지만, 사건 전개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공간은 아니다.

**10 눈이 오면**

본문 077~08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이 글에는 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7 '그'는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09 '그'는 매물차고 척박한 도시의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비틀거리며 헤매고 다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도시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 17 동사무소 '사내'가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가서 알아본다고 해도 헛수고일 것이라고 하였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④ 4 ② 5 ① 6 ② 7 병든 개처럼 8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추억 속의 공간인 꼬두메가 낯설게 변해 버린 모습을 통해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 이 글에는 인물(‘그’)의 내적 독백이 따옴표 없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지시 표현을 통해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통해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글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④ 서술자 자신이 아닌 ‘그’의 체험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가 ‘그’의 입장에서 주변 인물들과 사건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파랗게 질린 입술로 몸을 떨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아닌, ‘그’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④ 비유적 표현이 활용된 부분은 있으나, 인물의 행적에 대한 논평은 찾을 수 없다. ⑤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으나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난한 꼬두메 마을’로 미루어 보아, 꼬두메가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꼬두메는 ‘그’의 고향이다. ② 운전수와 구멍가게 주인 남자는 꼬두메를 모르고 있으므로 꼬두메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곳을 알 수 있다. ③ 어머니는 꼬두메가 사라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간절하게 찾아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4 [A]는 특정 인물, 즉 ‘그(찬우)’가 회상하는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꼬두메와 관련된 어린 시절에 대한 ‘그’의 회상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로 내려가면서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꼬두메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사건 전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가 ‘그’의 주관적인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서술의 초점은 ‘그’에게 맞추어져 있다.

5 ㉠에는 목적지인 고향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기억하던 고향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② ㉠에서 ‘그’는 고향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음을 인식했을 뿐,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에서 ‘그’는 고향이 완전히 변해 버렸음을 깨닫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④ ㉠은 ‘그’가 어머니의 요청만으로 충동적으로 고향에 내려온 자신의 모습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이 드러난 부분으로,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에서 ‘그’는 묘 이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묘 이장 공고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6 서술자인 ‘그’는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는 고향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고향으로 향한 것이므로, 시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그’가 갑작스럽게 고향 여행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며 낙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그’가 고향을 찾가지 않은 것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가 고향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공고를 보지 못한 것이지, ‘그’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본문 085~09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현재 성인이 된 ‘나’가 과거를 떠올리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06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의 내밀한 심리와 정서가 서술되고 있다.
- 10 오즘을 누고 돌아 나오기까지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로 묘사되며, 본격적인 불안과 공포는 찢지 단지 사건 이후에 나타난다.
- 11 ‘나’의 가솔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 15 ‘나’는 예상과 달리 평온한 세계의 모습에 오히려 혼돈과 낯섦을 느끼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슬퍼한다.
- 16 엄마는 연탄집게로 때리는 대신 ‘나’의 불을 잡아 비틀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⑤ 5 ⑤ 6 그렇게 컸다 7 다양한 음성 상징어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사건 이전의 일상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1 작품 속 주인공인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1인칭 시점을 활용하여, 인물의 정서에 독자가 깊이 몰입하고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인이 된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맞지만, ‘반성’보다는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는 ‘성찰’과 ‘수용’의 태도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 ② 요약적 서술보다는 인물의 심리와 감각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위주로 전개되어 독자와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③ 현재와 과거의 교차가 나타나지만, 이는 개인의 내적 성장 과정을 보여 줄 뿐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지 않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가 사건의 당사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주관적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보기>에서 공간의 변화는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장치이자 ‘시간의 흐름과 인식의 성숙’을 확인하는 매개체라고 하였으므로, 유년의 기억이 현재와 단절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소설의 도입부에서 성인이 된 ‘나’가 옛 동네를 찾는 장면은 과거의 회상을 유도하는 역순행적 구성 장치이다. ② 찢지 단지를 깨뜨린 직후의 긴박함과 공포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체험하는 자아’의 정서에 깊이 공감하게 한다. ③ ‘아슬푸레한 깨달음’은 자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객관적 현실을 마주하며 얻은 인식의 성숙을 상징한다. ⑤ ‘서술하는 자아’인 성인 서술자는 어린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건의 본질(성장의 아픔과 화해)을 성찰적 시선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 3 재개발 현장은 성인이 된 서술자가 유년의 기억을 환기하며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일 뿐, 유년 시절의 상처나 죄책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찌지 단지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출발점이지, 어린 '나'의 죄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② 눈사람은 잘못을 감추려는 유년의 심리와 미숙한 현실 대응 방식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③ '나'의 가출과 배회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내면의 혼란이 외적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④ 평온한 마당의 모습을 본 '나'는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4** '나'는 ⑥가 자신의 사정과 관계없이 평온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에 서글픔과 혼란을 느끼지만, 이를 통해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현실을 부정하고 ③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⑥는 어린 시절 '나'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투영된 세계이다. ② ⑥는 '나'의 감정이나 기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이다. ③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의 풍경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두 세계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④ 세상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인식은 '나'를 압박하던 죄책감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해방감과 안도감을 주고 있다.

**5** ㉠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나'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나타난다. 단지를 깨고 가출한 '나'는 어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출 후 집안의 상황은 '나' 없이도 무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혼돈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나'는 ㉠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온 것이지, 어른들이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고 마워 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계절적 배경과 마을의 쓸쓸한 분위기로 인해 온 것이 아니다. ③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슬퍼한 것은 아니다. ④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분노를 느낀 것은 아니다.

## PART 2 | 극·수필

### 01 꼭두각시놀음

본문 094~10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은 하나의 중심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적으로 전개되는 구조가 아니다. 각 막들이 독립적 사건을 가진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이다.
- 07** 이 글에서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주인 평안감사가 노래를 부르고 흥동지가 조롱하는 등 희화화된다. 이는 지배 계층의 권위를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 11** 돌모리집은 절을 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꼭두각시에게 대항한다.
- 13** 꼭두각시는 돌모리집이라는 첩의 등장에 크게 실망한다.
- 14** 박 침지는 첩인 돌모리집의 편만 들며 본처를 박대하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 15** 재산 분배 시 꼭두각시는 쓸모없는 것만 받고 신세 한탄을 하며 떠난다.
- 16** 평안감사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재산을 얻은 기쁨에 춤을 추는 탐욕스럽고 패륜적인 인물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④ **4** ① **5** ④ **6** [제5막]에서는 꼭두각시에게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하는 무능력한 관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7막]에서는 권력자인 평안감사에게 억울하게 태장을 맞음으로써 지배층의 횡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흥동지가 상여를 메는 과정에서 무례를 범한 것은 맞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인물은 흥동지가 아니라 박 침지이다. 따라서 평안감사가 행위의 책임 소재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내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표 생원은 자신과 꼭두각시가 늙고 가난하며 자식도 없는 처지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는 노년의 빈곤과 일점혈육이 없다는 현실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꼭두각시는 돌모리집이 작은 집(첩)임을 의식하며, 본처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인물의 지위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어도 큰마누라요, 커도 작은마누라니 인사나 시키시오”에서 알 수 있다. ③ 돌모리집은 꼭두각시의 인사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조롱하듯 꼭두각시에게 머리를 들이받는 폭력적 행위로 대응한다. ④ 상두꾼이 발병이 나 상여가 나가지 못하자, 박 침지는 자신의 조카 흥동지를 상두꾼으로 추천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이는 평안감사의 요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2** ㉠은 표 생원과 박 침지의 갈등이 해결되어 화해에 이른 장면이 아니라, 창(唱)과 춤을 빌려 비극적 상황을 예술적으로 마무리하는 퇴장

장면이다. 꼭두각시는 직전까지 불공정한 재산 분배에 불만을 토로했으므로, 이를 재산 분배 결과에 대한 자발적 동의나 기존 질서의 수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갈등의 인과적 해결 대신 인물의 퇴장으로 상황을 매듭짓는 방식은 민속극 특유의 거리(막) 종결 구조에 해당한다. ② 비극적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흥겨운 가락과 몸짓으로 전환하는 것은 '슬픔의 희극적 승화'라는 민중적 미의식을 보여 준다. ③ 장과 춤을 결합하여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것은 대사 중심의 현대극과 차별화되는 민속극의 양식적 특징이다. ④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비되는 해학적 거구는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민중의 낙천성을 드러낸다.

**3** ㉠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상해 상황을 사적 이익과 직결시켜 기뻐하는 발화로, 인물의 탐욕과 비도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엄숙한 분위기와 대비되는 희극적 장치로 기능할 뿐, 인물이 겪는 심리적 혼란이나 내적 갈등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의 죽음을 '안방 차지'라는 개인적 이익과 연결하는 발화는 상례의 엄숙성을 훼손하며, 인물의 속물적 태도를 드러낸다. ②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현실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환원하는 모습은 전통적 가족 윤리의 해체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③ 평안 감사는 지배층 인물로서 예법과 도덕적 책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사적 욕망을 앞세운다. 이는 당대 권력층의 도덕적 타락을 풍자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비극적 상황과 대비되는 노골적인 기쁨의 표현은 인물의 비도덕성을 과장하여 희화화하고, 관객에게 웃음과 함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4**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라는 꼭두각시의 말은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실현되는 과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가 좌절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박 첨지가 '구정으로서 잘 처리하겠'다며 내린 편파적인 결정은 공적 권위를 내세우는 인물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통해 당시 관리들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박 첨지가 벌거숭이인 흥동지를 상여꾼으로 골라 천거한 것은, 권위와 엄숙함을 지켜야 할 평안 감사의 상례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지배층의 권위를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박 첨지가 '주릿대학춤'이나 '고드래뽀 튕겨지'는 것을 언급하며 흥동지를 재촉하는 것에는 조선 후기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행했던 부당한 물리적 횡포를 피지배층의 시각에서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흥동지가 평안 감사에게 “빨가벗었다라고 상여만 잘 매면 됐지.”라고 응수하는 것에는, 체면과 형식에 치중하는 지배층의 허위의를 비판하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피지배층의 반항적 면모와 함께 형식과 예의보다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민중의 실용적 사고관이 반영되어 있다.

**5** [제5막]의 세간은 대화 속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소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7막]의 상여는 흥동지가 직접 메는 장면과 설정에 따라 소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문'은 언어유희로만 등장하므로 공연에서 실내외를 구분하는 장치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외를 구분 짓는 사실적인 문'이라는 내용은 공연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제5막]과 [제7막]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대화와 노래 장면은 무대 뒤 '대집'이 인형을 조종하며 연행을 수행하는 전형적 상황에 해당한다. ② 재산 분할 장면([제5막])과 상여를 메는 장면([제7막])은 각각 '처첩 갈등'과 '계승 간 대립'이라는 화소를 통해 인물 간의 대결 양상을 보여 준다. ③ [제5막]과 [제7막]은 줄거리상 독립적이지만, 박 첨지의 반복 등장으로 극 전체의 상관성을 느슨하게 유지한다. ⑤ [제5막] 끝에서 꼭두각시 인형을 무대 아래로 내리고, [제7막]에서 박 첨지를 무대 위로 올리는 연출은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관객에게 보여 주는 장치이다.

## 02 불모지

본문 102~10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인물이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건네며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7** ㉠ 어머니가 고약을 다 붙였는지에 대해 묻고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 대신 굿은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것이 팔려고 한 것이 아니다. ㉢ 복덕방이 경수로 인해 마음이 상하자 “김 침지! 김 선생!” 하고 뒤를 쫓아나가며 복덕방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철화하고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③ 5 ② 6 화초밭 7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최 노인 일가의 비극을 통해,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암울하고 황폐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1** ‘종로’와 같은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극 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니면 껌집이나?”에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② 과장된 의상과 소품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희극성이 드러난 작품도 아니다. ③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나고 있으나, 이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낮은 한옥과 높은 집이라는 대조적인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어머니와 경수는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최 노인은 이사를 가지는 경제의 밑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② 최 노인은 주변의 높은 건물들 때문에 ‘햇볕 구경’도 못 하게 되어 버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흥정을 그만두고 나가자, 최 노인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더 대우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호칭인 ‘선생’으로 고쳐 복덕방을 부르고 있다. ⑤ 어머니는 화초밭을 짓밟기 시작한 최 노인을 말리려고 황급히 뛰어내리느라 신발도 신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가 맨발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3** 어머니가 최 노인에게 집을 전세로 줘서 뭐 할 거냐고 묻는 것은 최 노인의 계획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집을 전세로 주려 한 최 노인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서이다.

**오답 해설** ① ㉡를 통해 최 노인이 변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어지는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라는 말을 통해 경수는 변화하는 시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② 복덕방은 ㉡와 같이 말하는 경수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전세 계약을 위한 흥정을 중지하게 되었다. ③ 경수는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 이어지는 최 노인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리게 된 것이다. ⑤ 경수도 경수, 어머니처럼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듣고, 최 노인은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4** “사실이야! 빌어먹을 짓!”에는 고층 건물로 인해 햇볕 구경을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을 뿐, 이를 권력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운의 생각이 담겨 있다. ②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를 통해 최 노인과 경제 사이의 갈등을 막으려는 경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경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복덕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⑤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를 통해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는 어머니의 생각을 알 수 있다.

**5** [A]에는 세상이 놀라울 정도를 많이 변했을 때 쓰는 말인 ‘상전벽해(桑田碧海)’가 가장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④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튼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 03 노비 문서

본문 110~11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글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곡이다.
- 05 이 글은 극 갈래 중 희곡으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06 <중략 부분 줄거리> 앞부분에서 방향을 조건으로 한 노비군의 동원에 대해 서로 대립하던 인물들은 결국에 합의에 이르고 있다.
- 09 노승은 노비들에게 방향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노비군을 조직하고자 고 제안하였다.
- 13 노승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귀천이 이루어짐을 소송이 모르는 건 아니요.”라고 하였다.
- 16 노승은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선 안 되고,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하오.”라고 하며 다스리는 근본이 힘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⑤ 4 ⑤ 5 ① 6 ③ 7 이자헌은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승은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이 글은 극 갈래인 희곡으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중략 부분 줄거리> 전에서는 노승과 이자헌, 부사, 판관의 갈등을,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서는 노승과 이자헌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고려 시대 노비들이 일으켰던 ‘만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④ 한번 종이 되면 자자손손 우마와 같이 재산처럼 팔리는 노비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눈앞의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노비들의 방향에 동의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약속을 어기는 이자헌의 태도 변화에서 모순적인 지배층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 노승은 섬에 피난하여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나라의 주인인 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판관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의 반발과 권도를 풀어놓을 시일을 할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들며 노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② 노승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비군을 조직하지는 제안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비들에게 방향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판관은 후일이 걱정되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 딴 도리가 없다고 하였고 이자헌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⑤ 노승이 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부사는 ‘말씀이 지나’치다며 화를 내고 있는데 이에 이자헌은 ‘대사 고경하십시오.’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판관이 노비를 방랑한다 하면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십상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노비를 방랑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모두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4** 교차 편집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서로 엇갈리게 편집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교대로 보여 줄 때 사용하는 것이다. 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교차 편집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몽타주는 따로 촬영된 화면을 떼어 붙이면서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기법을 말하는데, 일련의 짧은 샷들로 촬영한 노비들의 다양한 혹은 장면을 보여 준다든 계획은 적절하다. ② 인서트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갑자기 신문 기사, 명화, 사진, 편지 따위를 확대하여 끼워 넣어서 불쑥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승의 대사 중간에 왕의 항락 장면을 끼워 넣는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클로즈업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왕의 행실을 비판하는 노승의 말에 화가 난 부사가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있으므로 그의 얼굴을 크게 확대하여 이를 강조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거나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장면을 마무리하는 기법으로 ⑤에서 <중략 부분 줄거리> 전의 신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다.

**5** [A]에서 노승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언젠가 대가를 버릴 것이’라며 상황을 가정 후 예상되는 결과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B]에서 이자헌은 자신이 ‘일개 성의 목사로서 국록을 먹고 있는 몸’으로 ‘마음대로 나라의 제도를 고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6** 강쇠와 지영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였으나 지영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므로 이것이 1970년대 민중들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책임감 없이 도주하는 지배층의 모습은 1970년대 권력층의 허위와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노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려는 이자헌의 모습에서 1970년대 민중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지배 계층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노비 해방 운동이 실제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결말은 1970년대 민중들에게 부당한 권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⑤ 백성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 하지 않고 피신하여 항락을 즐기는 왕의 모습은 1970년대 민중들에게 진정한 나라의 주인과 권력에 대한 계몽 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8 극적 효과나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위해 원작에 없는 장면이나 장치를 삽입할 수 있다.
- 14 성기가 정착하는 삶에 성공하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것은 역마살의 운명에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성기가 계연과의 결혼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유량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역마살의 운명 때문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① 3 ① 4 세 갈래 길 5 ③ 6 ⑤ 7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운 발걸음 8 성기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운명에 순응하여 유량의 삶을 선택하였음을 암시한다.

- 1 '세 갈래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얽매인 인물들이 선택하게 되는 삶의 길을 상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나리오에서 이펙트(Effect)는 화면 밖이나 안에서 들리는 소리 효과를 말하며 극적 분위기를 긴장감 있게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② 계연과 이별하고 낙심한 성기의 상황을 '공공 얼어붙은 강물'로 제시하고, 성기가 운명에 순응하기로 하고 길을 나서는 장면에서는 '햇살을 받고 번득이는 강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성기와 계연의 과거를 회상 장면으로 구성하여 성기가 계연과의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운명에 순응하게 되는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인물들이 구사하는 지역 사투리를 통해 사실적, 토속적 정서가 드러난다.

- 2 이펙트로 처리한 옥화와 혜초의 대사를 통해 옥화가 역마살을 풀기 위해 성기를 절에 맡긴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되어 계연을 떠나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정말?"이라는 계연의 말을 통해 계연이 성기의 말을 못마땅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성기는 동운과 계연이 떠나려는 순간에 들어온 것이지, 소식을 듣고 온 것이 아니다. ⑤ 지리산 유람을 온 사람은 동운이 아니라 동운에게 여수로 가져다 권한 사람이다.

- 3 혜초와 소향, 옥화의 대사가 'E'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소리뿐만 아니라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옥화의 외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② 세 갈래 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세 갈래 길'이라는 배경이 잘 드러나는 장소를 찾아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성기와 계연이 사랑하는 사이였을 때는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던 봄이고, 성기와 계연이 이별한 후의 강변은 공공얼음이 언 겨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적 상황을 고려하여 촬영 일정을 잡는 것은 적절하다. ④ 성기가 운명에 순응하여 길을 떠나는 장면은 새로운 삶의 의지와 함께 발걸음이 가벼운 상태이다. 따라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성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옥화의 슬픔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옥화에게서 멀어지는 성기의 뒷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 5 이 글의 인물들은 역마살이라는 운명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결과에 이른다.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가 집을 떠나는 것도 이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기가 계연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정착을 위한 삶이므로 운명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오답 해설** ① 계연은 운명에 의해 결국 성기와 사랑할 수 없고 떠나간다. ② 성기가 집을 떠나는 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으로 성기가 선택한 삶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④ 옥화가 성기를 절에 보내는 것은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으로써 운명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성기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것은 역마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6 성기가 역마살의 운명에 따라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옥화는 어머니 소향과 혜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역마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아무리 거역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뒷짐을 지고 입을 맞추는 성기와 계연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② 미음을 먹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이므로 죽기로 한 마음을 고쳐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성기가 결혼하려고 생각한 계연이 자신의 이복 이모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이 컸을 것이다. ④ 계연이 애걸하듯 호소하듯 붉은 눈으로 성기를 보는 것을 보면 성기가 자신을 잡아 주기를 바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비판이나 풍자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07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 11 현우가 다른 남자와 자신을 비교한 연희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다.
- 12 연희는 현우가 음악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음악을 하기 바란다.
- 17 현우는 용석이 수정과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용석이 수정과 헤어진 이유를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⑤ 5 ④ 6 낙엽을 다 떨군 채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

- 1 현우와 연희, 용석은 모두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내면 심리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인물은 찾을 수 없다. ③ 현우와 연희, 현우와 용석 간의 갈등이 각각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장면의 전환에 따라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④ S#5는 현우와 연희, S#74는 현우와 용석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는데,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⑤ S#74에서 인물들이 거리를 걸으며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만 허무 의식이 극대화되고 있지는 않다.

- 2 S#74에서 현우가 용석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음악을 포기하고 수정과 헤어지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이 주리를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물의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말과 행동이 다른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용석이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면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클로즈업을 사용해야 한다. 롱 쇼트는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 하여 전경을 찍는 것이므로 안대를 하고 있는 용석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연희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현우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연희가 바라보는 현우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연희가 바라보는 링거를 매단 나무의 모습은 인서트를 활용해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현우가 단지를 천천히 빠져나오며 페이드 아웃되는 것은 화면 전환에 자연스럽게 적절하다. ⑤ 문 닫힌 약국, 길 건너 떡 파는 재일이 할머니, 철길을 지나는 모습 등은 작은 시골 마을인 탄광촌의 여러 풍경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몽타주 기법을 활용해 따로따로 촬영하여 이어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4** 현우는 탄광촌 중학교 관악부 교사로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관악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따라서 이 글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현우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냉정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제작 의도와 맞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겨울은 상처 입은 현우가 성장을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며, 꽃 피는 봄은 현우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강원도 탄광촌은 소외된 지역으로 쓸쓸한 풍경이지만 이를 정감 어린 따뜻한 시선으로 담는 것은 제작 의도에 부합한다. ③ 현우와 주변 인물들이 소통하는 것은 현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할 수 있다. ④ 현우와 관악부 아이들의 연주는 이 글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를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감동을 주는 것은 제작 의도에 부합한다.

**5** 현우는 자신을 실패한 음악가로 여기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작은 탄광촌 마을에서 임시 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의 대사를 확신에 가득 찬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연기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라는 현우의 대사를 통해 연희가 술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약간 몸을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장난스러우면서도 장난만은 아닌”이라는 지시문을 통해 트럼펫을 불어 달라는 연희의 말이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난스러운 말투이면서도 너무 가볍지 않게 연기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음악을 잘했다는 아버지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용석이, 현우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것이므로 뿌듯한 미소와 함께 멋진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⑤ “근대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라는 용석의 대사와, “그게 사랑이니? 그래, 안 그래?”라는 현우의 반문을 통해 현우가 흥분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라는 것은 적절하다.

**05** 한양의 모습은 멀리서 바라본 모습만 제시되어 있다.

**09** 자연에 대한 관찰은 일부 드러나지만,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은 드러나 있지 않다.

**12** 글쓴이의 부모님은 여러 번에 걸친 글쓴이의 간청 끝에 그 뜻을 허락하였다.

**13** 글쓴이는 한양을 향하여 가다가 그 설레는 마음을 시로 읊었다.

**15** 글쓴이는 시내에서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① 5 ⑤ 6 ⑤ 7 세검정 8 ㉠은 글쓴이의 여행을 좋아하는 모습을, ㉡는 글쓴이의 밝고 편안한 마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1**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거리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② ‘못하겠는가’, ‘없겠는가’, ‘웁은가’와 같은 의문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글쓴이의 여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남산’, ‘세검정’, ‘백석실’ 등으로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그곳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나열하고 있다. ④ 한양을 바라보며 지은 시와 백석실에서 섬돌 위에 떨어진 꽃잎을 보고 지은 시를 여정의 중간중간에 제시하여 다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2** 임금님이 쓴 글씨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몇 번에 걸쳐 부모님을 설득하여 기어코 허락을 얻어 낸 모습에서 글쓴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천리마가 재갈을 벗어 던지고 천리를 내달는 듯’하다며 자신의 기분 상태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한양을 바라보며 그 웅장한 형세와 엄숙한 기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백석실의 정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흥취를 돌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

**3** ‘세검정’이라는 현판 옆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삶에 대한 무상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한양으로 가던 도중 ‘엄숙한 기상’을 느끼고 있다. ② 글쓴이는 남산에 올라 한양 궁궐 주변의 산과 대궐을 보여 상서로운 느낌을 받고 있다. ③ 글쓴이는 한양 시내를 보며 태평한 기상이라고 느끼고 있다. ⑤ 글쓴이는 백석실에서의 경치를 보며 시를 읊고 있다.

**4** [A]는 한양으로 가기까지의 글쓴이의 기대감을, [B]는 백석실에서 느낀 글쓴이의 흥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② [B]에는 앞으로의 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에는 글쓴이의 과거 여정이 드러나지만, 안타까운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으나, 이는 향토성과 토속성은 무관하다. ⑤ [B]에는 인생의 무상감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5** <보기>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여행을 한문으로 남긴 것은 향유 계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침윤의 거북’이나 ‘세검정’의 일화를 언급한 것은 이를 알 수 있는 향유 계층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호동서라기**

본문 133~13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이 글에 설의법은 나타나지만, ‘질문-답변’의 방식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쓰기가 남장을 한 것은 당시 여성이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시대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네 고을'이 의미하는 금호 4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② 기행문에 한시를 삽입하는 것이 한문 여행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부평초'는 글쓰이의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습성을 빗댄 것이다. ④ 글쓰이가 효심이 깊은지는 알 수 없다.

**6** 글쓰이는 김 상서의 별장을 지나 백석실에서 느낀 감정을 시로 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쓰이는 자신의 여행을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다. ② 글쓰이는 자신의 유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글쓰이는 한양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④ 글쓰이는 당시의 유희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7 해갑와기**

본문 140~14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옛날의 제왕'부터 '뒷사람 1, 2'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흥망성쇠를 고찰한 것은 아니다.
- 09 성현의 말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흥언명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
- 15 글쓰이는 해갑와가 '옛날의 제왕'이 살던 곳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18 글쓰이는 '진실로 학문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② 4 ② 5 ③ 6 큰 정치를 펼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작다고 여기지 않았다. 7 ㉠ 만족, ㉡ 욕심

- 1 이 글은 흥언명이 지은 '해갑와'라는 집에 대한 기문으로, '해갑와', 즉 '게딱지처럼 작은 집'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쓰이는 자신이 흥언명의 집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즉, '해갑와'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견문을 서술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쓰이가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거나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다른 사람'이라고 지칭할 만한 인물은 흥언명뿐인데, 이 글에서는 흥언명의 주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제왕들의 거처가 변화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만, 글쓰이가 경험한 사건은 아니다.
- 2 '옛날의 제왕'과 '뒷사람'들의 경우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는 '옛날의 제왕'을 긍정하고 '뒷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크고 작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얻으려는 효과는 '비판'과 '의미의 부각'이지 '의지의 부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제왕들의 거처가 '작고 소박함 < 크고 화려함 < 더 크고 화려함'과 같이 점점 크고 화려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점층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이다. ② 1문단에서 '옛날의 제왕' → '뒷사람이 이를 작다고 여겨' → '뒷사람이 또 이를 작게 보아'의 방식으로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앞의 내용을 뒤에서 받아 잇는 방식, 즉 연쇄적 방식으로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어찌 이미 크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이를 키우려 하는 자가 있겠는가?'에서 크다고 여기면, 즉 만족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를, '어찌 이미 작게 여기면서 능히 이를 크게 하려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에서 작다고 여기면, 즉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의미를 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⑤ '애 똑같은 제왕이었지만 그 거처가 이렇듯 같지 않은은 어찌 된 것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글쓰이는 '흥언명의 집은 내가 비록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집이 '옛날의 제왕이 견디며 살던 곳'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해갑와'의 모습은 글쓰이의 추측일 뿐 흥언명이 실제로 '옛날의 제왕'의 거처를 모방하여 지은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세속의 말에 집이 작은 것을 두고 게딱지라고 하니, 흥언명 또한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가난한 선비의 즐거움이란 ~ 또한 어찌 그 집을 게딱지로 볼 수가 있겠는가?'로 보아 알 수 있다. ④ '그 집이 비록 게딱지만 하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또한 작지는 않은 셈'이라고 말한 뒤 '선비로서 그 사업을 능히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학문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다면 또 어찌겠는가? 흥언명은 힘쓸지어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⑤ '흥언명으로 하여금 진실로 학문에 힘쓰고 ~ 비록 게딱지로 그 집을 보더라도 또한 관참을 것이다.'에서 흥언명이 학문과 사업에 힘써 나라에 등용되고 이로움을 널리 펼치는 인물이 되고, 해갑와가 그 터전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짐승은 자신이 크고 새가 작다고 여기지만 새는 자신이 크고 벌레가 작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승산이나 화산과 모래나 먼지의 크기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은 이처럼 크고 작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상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대적(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 ③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 ④ 한 사회에서 굳어진 전통적 행동 양식이나 관습에 따른 것. ⑤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

**5** '그 집이 비록 게딱지만 하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또한 작지는 않은 셈'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작은 집이라도 작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집의 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 즉 인식의 문제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한 말이지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면 '그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심이 무한함을 지적하면서 글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만족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②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된다'는 말은, 작지 않다(크다)고 여기면, 즉 자족하면 헛된 욕심을 갖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큰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크다'와 '작다'라는 크기의 문제를 역설적 논리에 기반하여 재해석하면서 정신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④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 즉 절대적인 것이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라는 말은, 선비들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학문과 사업'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⑤ '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는 것은 선비의 이상인 학문과 사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흥언명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흥언명이 선비로서의 역할에 정진할 것을 바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
- 05 공감각적 이미지로 산촌 생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07 영탄적 어조는 쓰이지 않았으며, 자연 동화보다는 도시적 자아의 번민이 강조되고 있다.
- 09 글쓴이가 있는 산촌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온다고 하였다.
- 12 팔봉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15 배짱이 울음소리를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 등에 비유하며 도시 경험과 연결하고 있다.
- 16 꿈속의 식구들은 포로들처럼 늘어서서 글쓴이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로 나타나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 17 산촌을 예찬하기보다 도시적 관점으로 관찰하며, 오히려 도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③ 4 ⑤ 5 ⑤ 6 시계(또는 장침과 단침) 7 '근심'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문질러 닦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시각화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 1 이 글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글쓴이는 산촌 생활에 대해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도회지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가난한 식구들을 걱정하며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산촌의 밤의 정경과 꿈속의 일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산촌의 짐승을 '동물원'과 연결하거나 '파라마운트' 상표를 떠올리는 등 근대적·이국적인 이미지를 동원해 산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정 형'이라는 특정 수신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편지글 형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⑤ 별빛, 발레 소리, 석유 등잔 냄새 등 시각·청각·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촌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산촌의 고요함 속에서도 도회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산촌에 동화되어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자연에 안주하기로 결심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언급하며 커피를 떠올리는 장면은 도시적 감수성과 취향을 드러낸다. ② '철골 전신주'는 소식을 부호처럼 전하는 존재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도회와의 연결 및 고향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꿈속에서 도회에 남겨 둔 가난한 식구들을 보며 걱정하다가 잠에서 깨는 장면은 도회에 대한 번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하다는 표현은 '하루'라는 시간을 '짐'에 비유하여 삶에서 느끼는 무게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이 글에서는 '배짱이' 울음소리를 '차표 찍는 소리'나 '이발소 가위 소리'에, <보기>에서는 '낙엽'을 '지폐'에, '길'을 '백타이'에 비유하는 등 자연의 풍경을 근대적·도시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 등 글쓴이의 내면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보기>에도 화자의 황량한 생각과 고독이라는 주관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② 이 글과 <보기>는 모두 가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하지만, 생동감을 예찬하기보다는 가을의 적막함 속에서 느끼는 번민이나 고독을 다루고 있다. ④ 이 글은 도회에 남겨 둔 가족과 일상을 떠올리며 걱정과 번민을 드러내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주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기>는 고독과 황폐함을 드러낼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전통적인 자연 예찬에서 벗어나, 도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 4 '나'는 도회를 떠나 산촌에 머물면서 도회에 남기고 온 가족의 안부를 염려하기도 하고, 도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식구들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한다. 따라서 '도회'는 '나'에게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도회'는 '나'에게 걱정을 일으키는 공간이지 이상적 공간이 아니다. ② '도회'가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도회'가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번뇌와 걱정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 5 작가는 꿈에 나온 도회 소녀의 생김새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여 이국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국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산짐승들을 보며 '동물원(도시적 공간)'을 떠올리는 것은 산촌의 자연을 도시인의 시각에서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산촌의 '석유 등잔' 냄새를 도회의 '석간'신문 냄새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③ 산촌의 배짱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도시에서 흔히 들던 '차표 찍는 소리'나 '이발소 가위 소리'를 연상하고 있다. ④ '가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계절의 변화를 '엷서 한 장' 쓰는 시간이라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사물의 분량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PART 3 | 갈래 복합

### 01 산민

본문 156~16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겪은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 동물이나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가 묻고 부인이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화자가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인가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호랑이는 산속에 사는 농민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고, 고을 관리는 평지에서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다. 즉, 고을 관리를 호랑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① 4 ② 5 ④ 6 가련할손 7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척박한 산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 이 글에 제시된 자연물은 산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이나, 이를 통한 화자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 어디 계시오'와 '~ 못 오신다오'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내용은 두메산골에서 만난 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화자가 부부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두메산골'과 '평지'라는 두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 ⑤ '가련할손'이라는 표현은 부부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16행의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로 볼 때 농민들은 ㉠으로 가고 싶어도 관리의 수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에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산속에 사는 부인을 만난 공간이자 농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다. ② 9~12행의 내용으로 볼 때 산속에서의 삶은 농민들로 하여금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④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로 볼 때, ㉠에 비해 ㉡은 편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⑤ 16행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농민들은 고을 관리의 수탈을 피해 산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 '밥상'은 부인이 나그네를 위하여 차린 것으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부인의 인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그네가 부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바깥어른이 아침에 쟁기를 들고 나가서 일하는 '산밭'은 갈기 어려운 대상으로, 산속 농민의 고단한 삶을 보여 준다. ③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비탈에서 서성대는 '개와 닭'을 통해 산속 생활의 외로움을 알 수 있다. ④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를 통해 '호랑이'는 삶의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⑤ 부인과 바깥어른이 '척박한 두메산골'에 사는 이유는, 편안해 보여서 가고 싶은

'평지'에는 무서운 '고을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의 주제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된 삶에 대한 연민', '벼슬아치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이 글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농민들이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고을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다. 부동산 집값과는 관련이 없다. ③ 산속에 사는 농민들이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은 산속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이웃과 소통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④ 농민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글의 농민들이 고통받는 원인을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찾는 것으로, 주제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 등장하는 개와 닭들은 산속에 인적이 드물게 나타내는 소재로, 밀렵과는 관련이 없다.
- 이 글의 화자는 '가련할손'과 같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권력층의 수탈이라는 부정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② 이 글의 '고을 관리'와 <보기>의 '참새'는 모두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 ③ 이 글의 농민들은 관가의 수탈을 피해 '두메산골'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보기>의 '늙은 흠아비'처럼 수탈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두메산골'과 '평지'라는 공간이 대비되며, <보기>에서는 '참새'와 '늙은 흠아비'라는 대상이 대비된다.

### 02 합강정가

본문 162~168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뱃놀이를 준비하는 모습은 드러나지만, 뱃놀이 도중에 일어난 일은 일부만 드러날 뿐, 과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 백성들이나 감사의 심리 모두 달라지고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④ 4 방아품에, 빌릴꼬 5 ⑤ 6 ④ 7 관리들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수확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말라 버린 땅(‘빌건 땅’)에 세금을 징수하는 당시의 수취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감사나 유생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어 화자가 대상에게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합강정 뱃놀이 준비에 대해 보고 들은 바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인 문답법이나 대상의 인식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합강정과 농민들의 삶의 공간인 '팅 빈 부엌'이 대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합강정 뱃놀이 준비를 위한 과정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화자는 귀신에게 범 같은 감사에게 원망의 뜻을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나, 이는 반어적인 어투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애원적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화자는 감사와 각을 관리의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화자는 백성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인자한 임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3** ㉔은 아낙이 저녁을 달라고 하는 관리에게 울릴 밥그릇이 없을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분으로, 화자의 예상이 아니라 아낙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㉔은 관찰사의 말로 추정되는 것인데, 화자는 이를 통해 관찰사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② ㉔은 귀신에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③ ㉔은 합강정 뱃놀이를 바라보는 관찰사 및 수령들과 백성들의 상반된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⑤ ㉔은 화자가 직접 관찰사에게 본인의 임무를 똑바로 하라는 권면을 드러낸 것이다.

**5** ㉑는 지배층을 위해 희생당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 ㉒는 아낙이 그릇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백성들은 귀신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며, ㉑가 그러한 공간인 것도 아니다. ② ㉒에 관리가 들어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㉑와 ㉒가 백성들의 공간인 것은 맞지만,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④ 길이 넓어지면 논밭이 좁아지므로 ㉑는 백성들의 불안한 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나, ㉒는 아낙이 관리를 소홀히 대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릇이 없는 현실에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공간이다.

**6** ‘참람한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아 / 오십삼 주 시향 예향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를 통해 화자가 전라도에 의로운 선비들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생들이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관찰사의 뱃놀이를 인해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화자는 관찰사의 뱃놀이를 위한 수탈로 인해 백성들이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유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⑤ 화자는 임금님의 한없는 은혜를 언급하면서 관찰사에게 임금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관찰사를 향한 경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3 응계설**

본문 169~17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글쓴이 개인적인 체험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유추의 방식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 06** 특정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08** 임금과 신하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나 있지만, 이를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12** 아픈 닭이 울자 응방이 폐지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픈 닭의 울음소리에 감동한 것은 임금이지,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다.

**14** 제선왕은 어진 마음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은 것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⑤ **4** ① **5** ⑤ **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임금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 글쓴이는 매에게 한쪽 날개를 잃은 닭이 울자 이를 충혜왕이 측은하게 여겨 응방을 폐지한 사실을 통해, 매의 폐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다친 닭의 울음소리에 응방을 폐지하는 임금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임금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아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경』 「강고」를 인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바라본 현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을 뿐, 글쓴이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자연물인 닭의 본성이 우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본성을 활용하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자연물인 매와 닭, 그리고 인간인 임금과 신하가 드러나 있지만, 이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와 현재의 인간 군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 글쓴이는 임금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야말로 신하들이 쉽게 간언할 기회였지만, 응방을 혁파하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하들은 충혜왕이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제 할 말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충혜왕이 악양에서 죽은 뒤에야 응방이 혁파되었다. ② ‘당시 백성들은 매를 잡느라 ~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를 통해, 응방에 매를 보내기 위해 백성들이 온갖 고초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람 이하로 노루, 토끼 ~ 모두 그 혜택을 입었다.’를 통해, 응방의 폐단이 동물들에게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 필시 성을 내며 죽여 버렸을 것이니’를 통해, 충혜왕은 매를 좋아할 당시에는 어떤 충신이 간언해도 듣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㉑은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아보는 관아로, 백성들이 ㉒에 매를 잡아 갖다 바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고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㉑은 백성들이 사는 공간으로, 아전들이 들이쳐서 백성들이 아끼는 소를 착취하거나, 유월에 나락을 바쳐야 한다. ㉑은 관가로부터 착취를 받아 고통받는 백성들이 사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㉑과 ㉒은 백성들이 받는 고통과 연관된 공간으로, 백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② ㉑은 관아에 속한 곳이므로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볼 수 없으며, ㉒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삶의 터전으로 볼 수 있다. ③ ㉑과 ㉒ 모두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아니다. ④ ㉑과 ㉒ 모두 백성들의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다.

**4**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는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닭의 울음소리보다 더 간절했음을 부각하고 있다. 충혜왕이 다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측은하게 여겨 응방을 폐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라는 의문형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충혜왕이 다친 닭의 울음소리에 감동했다고 하면서, 이는 닭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말과 달리 의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이는 충혜왕이 다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방을 폐지한 것과 관련한 글쓴이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③ ‘제선왕’의 고사나 ‘강고’는 어진 임금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므로, 글쓴이는 고사나 경서를 인용하여 위정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신하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충혜왕에게 간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신하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아, 이 또한 늦은 일이었다.’는 충혜왕이 죽은 뒤 응방이 폐지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글쓴이의 논평이라 할 수 있다.

**5** ③은 매에게 한쪽 날개를 잃은 닭의 울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충혜왕이 이를 듣고 측은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연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⑥는 꿈속에 임을 만나 못다 한 정을 풀어 보려는 화자의 잠을 깨우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①를 들은 충혜왕은 매에게 한쪽 날개를 잃은 닭을 측은하게 여겼을 뿐, ②로부터 깨우침을 얻고 있지는 않다. ② <보기>의 화자가 ⑥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충혜왕이 ③를 듣고 닭을 측은하게 여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⑥를 듣고 임을 만나려는 꿈을 꾀했다는 점에서 화자가 ⑥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인물의 태도 변화에 기여한 것은 ⑥가 아니라 ③이다.

## 04 계녀가

본문 175~18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친정어머나가 시집가는 딸에게 부녀자의 도리에 대해 일러 주는 규방 가사이다.
- 04** 청자(딸)를 호명하며 어머니가 교훈을 주고 있을 뿐, 두 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다.
- 10** 노비의 수고로움을 알고 한 가족처럼 여겨 따듯이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⑤ 5 ④ 6 ③ 7 당부의 내용을 달리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부의 내용을 일관적으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짐을 알려 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1**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예의범절에 관해 훈계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오답 해설** ① 청자의 과거와 현재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대상인 시집가는 딸이 시집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당부가 드러나 있을 뿐 미래 상황에 대한 근심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계절에 따라 청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시부모 공양, 자녀 교육, 노비 관리 등에 관한 훈계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⑤ 점층적 구성이 아니라 항목에 따른 세세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2**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 상황과 인물을 언급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당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들어 바라’, ‘~지 마라’ 등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당부 내용을 전하고 있다. ③ ‘아해야 들어 바라’에서 구체적 청자인 아해(딸)에게 전하는 말임이 드러나 있다. ④ ‘맹자의 어머입도 맹자를 기르실 제 /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결

에 사시고’에서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⑤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 없게 하지 말고 / 입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③은 비록 상전과 노비의 신분으로 귀천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노비의 수고로움을 알고 철육처럼 잘 돌보아야 함을 이르는 말이지, 귀천이 따로 없으니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일손을 바빠 들어’에서 규방(내 방)에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② ‘명주옷’은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주옷 입게 말고’를 통해 귀한 지식이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③ 지식을 양육할 때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⑤ ‘제가’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으로, 제가를 한 후에 ‘치산’을 하라는 것은, 먼저 집안을 다스린 후 실림살이를 풍족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4** ‘혼정신성’은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관중과 포숙의 사귀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②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③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이다. ④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을 이르는 말이다.

**5**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훈계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을 뿐, 이에 대해 청자가 화답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과 <보기>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지켜야 할 유교적인 덕목과 예절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이 심사 갈발 없어’에, <보기>에서는 ‘부디부디 잘 가거라’에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 ⑤ <보기>에는 경계해야 할 행동을 하는 인물의 예로 ‘괴퉁어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6**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는 자식이 귀하다고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지 말라는 의미로, 어머니로서 자식을 훈육하는 태도를 당부하는 것이다. 귀한 것을 자식에게 양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05 상론

본문 181~18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2** 이 글은 상을 맹신하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는 글로,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04** 이 글은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 외모 중심의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를 삶의 바람직한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현 의지보다는 비판을 통한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다.

**06** 이 글에는 공자와 관련한 고사가 등장하지만, 이는 외모가 아닌 품행으로 사람을 취한 공자의 행위를 칭송하기 위한 것일 뿐 글쓴이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10 '눈동자가 빛나'는 어떤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스승의 평가로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

13 사람들이 '그 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이론 것이 저와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상이 형세를 이룬다고 본다. 형세로 상을 이룬다고 보지는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㉕ 3 ㉑ 4 ㉒ 5 ㉔ 6 '자우'의 용모가 매우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품행을 보고 사람을 취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상의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상에 따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그 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는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사례는 일상적인 사례일 뿐, 글쓴이가 체험한 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상이 좋아 주변의 지원을 받은 사례와 상이 좋지 않아 귀하고 부하게 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를 대조하여 상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 등에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④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믿으면 ~ 신하를 잃게 된다'에서 상을 맹신할 때 벌여질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용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공자와 자우의 고사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이 나쁜 사람도 분야별로 필요한 뒷받침을 해 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용모로써 사람을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모보다는 성품을 닦고 능력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글쓴이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이고, 글쓴이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타고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유교적 전통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어떤 무리에서 무엇을 익히는가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미적 아름다움의 추구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익히는 것이 달라지면 상도 바뀐다고 하였다. 즉 외모가 바뀌면 성품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㉓은 익힌 것에 따라 상이 변한 것인데도, 이를 거꾸로 판단하여 상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즉, 글쓴이는 원인이 아닌 것(외모)을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일 뿐, 개인적 판단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③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성품이 옮겨 가고, 이로 인하여 상이 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상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이 변하는 것을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⑤ 상 때문에 익히는 것이 정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글쓴이가 비판하는 것이다.

4 ㉓은 상을 맹신하는 사람들로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㉕은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스승의 평가로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되는 대상이며, ㉑은 부모와 사장들이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㉒와 반대로 하여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하지 않는 대상이다. 이는 성장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영향을 준 경우를 보여 줄 뿐, 비판적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㉕은 '가르칠 만'한 상을 지니고 있어서 ㉓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되는 사례를, ㉑은 '미모가 더부룩하고',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㉓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여 자신을 귀하고 부하게 만들지 못한 사례를 보여 준다. 따라서 ㉒와 ㉑은 ㉓의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③ ㉒와 ㉑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을 이루게 된 경우이다. ④ ㉑은 '미모가 더부룩하고',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주지 않아 자신을 귀하고 부하게 만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례이다. ⑤ ㉑은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 부지런하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글에서 외모는 익히는 것이 달라짐으로써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외모와 성품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서는 군수의 '문서'에서 양반의 비도덕성을 폭로하고 있으므로, 신분과 도덕성 역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타고난 외모를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글이고, <보기>는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 태도, 허위익식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여 외모가 좋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보기>의 부자는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요?"라며 양반 중심의 비도덕적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사람들'은 '그 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다.'라며 상에 의해서 인간의 자질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보기>에서 '군수'는 '백성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라며 신분에 따라 귀함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⑤ 이 글에서 '부인'은 상을 중요시하는 기존 질서를 따르며 "이 아이는 부릴 만하다.'하여, 자분을 더욱더 주'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기>에서 '부자'는 양반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며 양반 계층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06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본문 188~19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중심 화제인 '시'에 대한 의문 제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으나 이것을 통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05 '옛사람'의 말과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권위 있는 학자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2 글쓴이는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시라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본다.

15 글쓴이는 불교적 색채로 시를 장식한 허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 ⑤ 2 ① 3 ⑤ 4 ⑤ 5 ② 6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움직여 시를 짓고 시를 읊으면 다시 생각하게 된다.

1 글쓴이는 시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애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긍정 또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절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시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대상인 시에 대한 글쓴이의 회의적인 시각과 애정이 모두 드러나 있다. ③ 시인이 시를 짓는 것의 어려움을 풀벌레와 광대가 소리를 내는 것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여 생각과 시의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글쓴이는 풀벌레, 광대, 시인은 모두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재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매기면 ~ 벗어나지 못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생각이 깊지 않으면 시가 좋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④ ‘힘든가 편한가로 말하자면 ~ 시인이 가장 힘들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유, 불, 도 삼교(三敎)와 제자백가에 통달했’으면서도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장식’한 허균을 비판한 데서 알 수 있다.

3 글쓴이는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시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는 외부적 자극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마음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② ‘거북 등껍데기’는 마음을 비유한 사물로서 ‘속을 태’운다는 것은 내면의 감정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희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글쓴이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④ 글쓴이의 생각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4 ㉠은 글쓴이가 실제로 허균을 만난 것이 아니라 허균의 문집을 접한 것을 표현한 부분으로, 실제로 이항복은 허균이 유배지에서 엮은 문집 중 시를 엮은 부분을 보고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허균은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온 뒤 이 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답 해설 ① 마음의 관여 없이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광대에 비해 온 생각을 짜내야 하는 시 창작 작업의 고됨을 부각한 표현이다. ②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순서를 ‘시인-광대-벌레’ 순으로 매기고, 이를 각각 ‘마루-마당-풀손과 섬돌 사이’라고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시 짓기를 멀리하려 했으나 이를 참지 못하는 글쓴이의 성향을, 술을 좋아하지만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빗댄 표현이다. ④ ㉠의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맑음. →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음. → 좋은 시를 쓸 수 있음.’이므로 맑은 마음에서 기인한 깊은 생각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5 <보기>의 김 시인이 경계한 것은 ‘그냥 걸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 뿐이다.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생각-시’의 관계를 ‘물-얼음’의 관계처럼 순환적이라고 보고 있다. ②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김 시인은 모두 시 창작의 본질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③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김 시인은 모두 시 창작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김 시인은 모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시론 장면과 완성된 시 낭독 장면이 대비될 뿐, 시 창작 과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 04 동일한 공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미자의 부재가 드러나는 여러 공간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07 인물의 감정은 장면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10 미자는 시상이 언제 오는지 묻고 있을 뿐, 시상이 오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재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12 미자가 계속 질문을 이어 가는 모습에서 시인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14 미자의 시는 현실의 죽음과 애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6 아무도 없는 정류장과 빈 공간의 제시는 미자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① 4 부재 5 ② 6 ③ 7 한 개인이 차지하던 자리는 다른 존재로 대체되지만,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은 계속됨을 통해 개인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세계의 ‘자속성’을 드러낸다.

- 1 김 시인은 시상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으려 노력해야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미자는 시상이 언제 오는지 질문하며 시상의 발생 시기나 계기를 알고 싶어 한다. ③ 맑은 방을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행동을 통해 미자의 부재를 인식한다. ④ 아파트 앞과 버스 정류장에서 미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미자의 부재를 보여 준다. ⑤ 김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2 미자는 시상이 멀리 있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 묻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김 시인은 시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② 김 시인은 가슴속에 시를 가두어 두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그곳은 어떡가요?”는 부재한 대상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물음으로, 상실의 정서를 드러낸다. ⑤ “이제 작별을 할 시간”은 이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여 준다.
- 3 미자는 시상에 대해 거듭 질문한다. 이는 시를 쓰려고 하는 미자의 간절하고 순수한 탐구 의지를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② 김 시인은 시상이 문패를 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주변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수목이 미자의 아파트에 들어와 전화를 거는 장면은 나오지만, 미자가 남긴 메모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시 창작 수업에서 논리적인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 시인이 미자의 질문에 자신의 일화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5 김 시인이 미자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 제시 되므로 ㉔와 같은 계획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미자가 김 시인의 말을 끊고 거침없이 손을 드는 모습에서, 미자는 질문을 하는 데 있어 망설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옥은 방문을 열어 본 뒤, 식탁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으므로 집 안을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S#93은 나무와 주변 공간의 전경이 중심이므로 동네 할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S#94는 버스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은 채 버스가 떠나는 장면이므로, 여러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김 시인의 강의를 들은 미자는 시상이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를 물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 의미를 찾아 여중생을 추모하는 시를 쓰게 된다.

**오답 해설** ① 미자는 시상이 언제 오는지 묻고 <보기>의 '누구' 역시 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으므로 둘 다 시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② 김 시인은 시가 일상과 내면에 존재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질문 이후 경험을 통해 시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④ 김 시인은 시가 개인의 주변과 내면에 있다고 강조하고, <보기>의 화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시를 발견한다. ⑤ 김 시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 역시 시창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08 규원가

본문 201 ~ 207쪽

기본 실력 다지기

06 '자취논'과 '긋은비'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실솔(蟋蟀)', '새소리' 등이다.

08 '원근(遠近)을 모르거나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를 통해 집 나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려 하지만 장애물로 인해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㉓ 3 ㉓ 4 ㉓ 5 ㉑ 6 ㉓ 7 ㉔는 남편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이고, ㉕는 남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1 화자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언어법을 통해 이러한 처지나 심정이 표현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논 섞어 치니 / 여름날 길고 길 제 긋은비는 므슴 일고'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매화(梅花)', '겨울밤', '여름날', '삼춘화류(三春花柳)', '가을 달' 등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④ '자취논', '긋은비', '초로(草露)', '모운(暮雲) 등의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함이 부각되고 있다. ⑤ 화자의 과거 모습을 표현하는 '설빙화안(雪鬢花顏)과 현재 모습을 표현하는 '면목가중(面目可憐)의 대조를 통해 현재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화자는 외로운 시간을 이겨 내기 위해 '녹기금(綠綺琴)'으로 '접련화(接蓮花)' 한 곡조를 타 보지만 방 안에는 오로지 자신뿐이므로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처지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 따라서 거문고를 통해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 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디어디 머무는고', '생각이야 없을쏘냐', '그립기나 말으려' 등의 표현과 혼자서 세월을 보내기 어려워하는 태도를 통해 화자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중(面目可憐) 되거고나 /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꺾소냐'라며, 화자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나이 들어 버린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④ 화자의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고 소식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며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 ⑤ 화자는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라고 하며 자신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3 ㉔에서 전우직녀는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에라도 만나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한 처지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백마금편'에서는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어디어디 머무는고'에서는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해 걱정하고 원망하는 심정을 드러낸다. ②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 진고'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을 달'과 '실솔'에서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간장이 구회하여' 끊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를 통해 임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알 수 있다.

4 '야유원'은, '새 사람이 나단 말가'에서 집을 나간 임이 새로운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화자가 추측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부용장'은,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에서 화자가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고,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야유원은 임이 화자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다. ④ 야유원은 화자가 아닌 임이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간이고, 부용장은 화자가 타인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야유원은 화자가 임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시련의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과 이별 후에 도피한 공간이 아니다.

5 이 글은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게 규방에서 지내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쓸쓸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지만, <보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말 못 하고 헤어진 소녀의 애절한 마음을 제3자의 시각에서 표현한 글이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관찰자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화자는 서럽거나 외로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의 여인은 말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으므로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장안유원(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 '어디어디 머무는고' 등과 같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남모르게 눈물만 흘릴 뿐 임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봉건 제도하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여성이 겪게 되는 슬픔이 드러나 있다. ⑤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여인 모두 임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애달픈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6 '천상(天上)의 전우직녀(牽牛織女)'는 장애물이 있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만나는 존재로서, 임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따라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스스로 참괴(慘愧)하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를 표현한 부분으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② 화자는 임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이중적 태

도를 보이고 있다. ④ 자신의 처지는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가진 여자는 또 없을 것이라며 자조하고 체념하는 부분이다. ⑤ 임의 탓으로 실 듯 말 듯하다는 의미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부분이다.

## 09 인현왕후전

본문 208~21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8 사건의 빠른 전개보다는 인물의 덕성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10 인현 왕후가 ‘송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있으나,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왕비 자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 14 인현 왕후는 왕의 복귀 명령을 처음에는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거부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① 3 ② 4 ③ 5 ③ 6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유교적 도리를 다하려는 겸손과 자책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 1 대화와 묘사를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도, 박진감 있게 전개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선인인 ‘인현 왕후’와 악인인 ‘장 희빈’의 대립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② ‘구름이 점점 걷힘에 태양이 다시 밝아 오니’에서 알 수 있다. ③ 인현 왕후, 장 희빈, 숙종 등의 실존 인물과 갑술환국 등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감을 부여하였다. ④ ‘누가 감히 말을 하리오’ 등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 2 ‘송이’는 두 대비가 즐겨 먹던 음식으로 후의 효심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② 후의 ‘큰 오라바님 되시는 편서 민 공’이 권하여 대문을 열었다. ③ 복선화음이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는 뜻으로 ‘선’에 해당하는 인현 왕후가 복위되는 모습을 통해 주제를 알 수 있다. ④ 숙종이 희빈 장씨에게 깊이 빠져 나라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⑤ 인현 왕후는 본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
- 3 궁중 사람들은 인현 왕후의 폐위에 서러워하나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차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인현 왕후의 복위 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남인이므로 인현 왕후는 서인 세력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의 폐출에 기뻐하는 ‘소인’은 남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후의 숙질을 끝내 처벌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통해 왕이 남인의 완전한 집권을 바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장 희빈의 흉모를 깨닫고 이를 처벌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권력이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인현 왕후를 ‘선’으로 장 희빈을 ‘악’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인 입장에서 쓰인 글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이 글의 ‘숙종’에 해당하는 인물은 <보기>의 ‘유 한림’이다. ‘유 소사’는 결혼을 주선한 사람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선(인현 왕후, 사씨)과 악(장 씨, 교씨)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으며 희빈 장씨와 교씨의 몰락을 통해 권선징악형 결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② 선에 해당하는 인물은 ‘인현 왕후’와 ‘사씨’이며 악에 해당하는 인물은 ‘장 씨’와 ‘교씨’이다. ④, ⑤ <보기>의 서사 구조를 보았을 때 인현 왕후의 폐위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풍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5 ‘큰 개’가 망령의 불과 도깨비를 쫓아내어 집안이 편안하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몽우’와 ‘뇌성’을 두려워하는 인현 왕후의 모습을 통해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인현 왕후와 ‘큰 개’는 버림받은 처지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은혜를 갚는 모습은 ‘큰 개’에서만 나타난다. ④ 인현 왕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는 근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⑤ ‘본가’에 유폐되어 있던 것은 맞지만, 저항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0 목동가

본문 216~22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시간의 경과보다는 두 화자의 가치관의 대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07 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삶의 유형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09 부정적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희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14 유배지에서 고난을 겪은 인물들을 떠올리는 화자는 사대부가 아니라 목동이며, 근심이 많아 보이는 사대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 17 목동은 분수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18 ‘쟁기’ 때는 소는 좋은 먹이를 먹지만 코뚜레와 고삐에 묶여 고된 노동을 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
- 19 ‘백정의 큰 도끼’는 무리한 공명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참혹한 죽음이나 정치적 탄압을 상징한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④ 4 ⑤ 5 ① 6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긍정하는 소의 유형은 푸성귀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제 맘대로 다니는 소이다. 이 소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자유롭게 안분자족하며 사는 삶을 상징한다.

- 1 전반부의 사대부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가치로 입신양명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후반부의 목동은 입신양명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화자가 문답을 통해 각자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 화자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이른 성취나 그에 대한 부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범접할 수 없는 대상과 그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전반부의 사대부 화자가 또 다른 화자이자 청자인 목동을 설득하려는 어조를 사용했지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청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2** ‘대도’는 묻는 노래의 화자가 강조하는 바로, 입신양명의 삶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묻는 노래의 화자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 저렇도다 소치기에 아느니라’라고 말하며 욕심을 잊고 자연에서 사는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여 상대에게 배우고자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두 화자 모두 인간의 생사와 성쇠가 하늘의 뜻(운명)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공명·이름을 중시하는 화자의 세속적 관점과 자연의 소리를 따르는 목동의 관점이 대비되고 있다. ③ 목동은 상대가 근심이 많은 것 같다고 짐작하며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⑤ 목동은 소를 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답하는 노래’의 화자인 목동은 인간의 삶을 소에 빗대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ㄷ), 작품에 등장하는 두 화자 모두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ㄴ).

**오답 해설** 역설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는 쓰이지 않았으며(ㄱ, ㄴ), 소를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ㄹ).

**4** [A]에서 화자는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과 같은 대비적 표현을 활용하여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삶의 자취를 남기고 싶은 욕망을 부각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질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 먹이는 저 아이야’라고 대화 대상인 목동을 부르고 있다. ②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아슬이라’에서 평생의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풀 끝의 아슬과 같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대화 상대에게 인간 영육을 아는지 물어보고 난 후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와 같이 대구를 통해 삶의 유한함을 언급하며 영육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의 부활되는 감정을 ‘공산 백골이 그 아니 느껴우냐’와 같은 물음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5** [B]의 화자인 목동은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고 있지 않으며, 운명에 따르고 분수를 지키는 삶을 긍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B]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각각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러 마’시고,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소박한 생활을 긍정하고 있다. ③ [B]의 ‘소치기에 아느니라’와 <보기>의 ‘어리고 하얗의 뜻’은 화자가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④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뜻을 모르는 속세의 사람들이 산속에 띠집을 짓는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⑤ [B]의 화자는 세 가지 유형의 소를 대비하여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1 풍계육가

본문 223~22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3** 이 글에서 대화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이 글에 연쇄적인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14** 화자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있지 않다.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③ **5** ③ **6** ⑤ **7** ‘청풍’, ‘명월’을 두고 ‘오두미’를 얻기 위해 ‘작록’을 마음에 두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1** 이 글은 자연에서의 삶과 속세에서의 삶을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말이나 글에서 의미하려는 내용과 반대로 나타내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글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④ 이 글에는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에는 표현 그 자체가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제1수>의 ‘청풍’과 ‘명월’은 화자가 친애하는 자연물로,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6수>에서 속세의 길을 추구하다 나중에 슬퍼하며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을 아니 달았노라.’는 청풍을 쫓게 여긴 데서 나온 행동이므로 자연 친화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문을 늦도록 닫’은 것은 속세와의 통로를 닫는 행동이므로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조그만 띠집’은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고, ‘뉘싯대’는 화자가 지내고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조그만 띠집’과 ‘뉘싯대’는 화자의 청빈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작록’은 속세의 부귀영화에 해당하고, ‘바람 비’와 ‘칼과 톱’은 속세(홍진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작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속세에서의 시련과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⑤ ‘오두미’는 속세에서 얻으려 하는 부귀영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추구하려는 ‘저 욕심’의 구체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제4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욕심을 부리는 속세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과 달리 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청빈한 삶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초장과 종장에서 대구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작록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삶을 표방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종장의 ‘조그만 띠집’에서 사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③ <제2수>에서 화자는 속세에서의 삶을 거부하는데, 그 까닭은 <제6수>의 ‘칼과 톱이 무’섭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제6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홍진에 나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슬퍼하고 뉘우’치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 <제1수>의 ‘옛사람’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판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제수>에서 ‘청풍’과 ‘명월’만을 둘 것을 다짐하며 속세와 단절하려 하고 있다. ②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은거 지향의 모습을 ‘청풍’과 ‘명월’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제2수>에서 화자는 ‘작록’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⑤ <제1수>의 ‘창’은 자연과의 소통 창구이며, <제2수>의 ‘문’은 속세와의 단절 도구이다.

5 ㉓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므로 ㉓는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다. ②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으므로 ㉓를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회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㉓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6 이 글에서 고사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청풍'과 '명월'이, <보기>에서는 '백구' 등이 자연물을 대표하는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속세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이 글의 화자는 '조그만 따집'에서 살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옥계산'에서 살고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독자에게 직접적인 당부를 하고 있다.

## 12 고금군지은현론

본문 229~234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선비의 거취를 '은거함'과 '벼슬함'으로 나누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 04 '잘못된 거취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나 '선비들의 각성 촉구'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12 2문단의 '꼭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하여 ~ 구차한 것은 아니다.'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부정하고 있다.
- 13 미자의 행동을 나쁘게, 백이와 숙제의 행동을 좋게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선비가 취해야 할 마땅한(당연한) 처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 다 마땅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14 이윤과 부열의 '벼슬함'은 뜻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15 「주역」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선택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 17 무능하여 세상에 버림받은 후 은자라고 자처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③ 2 ⑤ 3 ④ 4 ② 5 ① 6 ⑤ 7 '은거함'과 '벼슬함'을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8 상황

1 미자, 이윤과 부열, 백이와 숙제, 강태공 등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선비의 거취(은거함과 벼슬함)는 의리에 합당하고 시의에 맞는가를 따져 판단되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선비의 거취를 '은거함'과 '벼슬함'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것들 간의 우열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선비의 거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리'와 '시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1문단의 '이롭다고 해서 ~ 안 된다', '공자가 밥을 지으려고 ~ 하시려던 것이 아니다.'와 2문단의 '꼭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하여 ~ 구차한 것은 아니다.', '마땅히 떠나야 했기에 ~ 구차하다고 할 수 없다.' 등에서 부정 표현을 담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와 반대되게 말하는 반어와는 관련이 없다. ⑤ 「주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선비의 거취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 '은거할 만하기에 은거한 것이므로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숨은 것을 고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의리와 시의로 볼 때 마땅한 처신이므로 특별히 높이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결정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고상하다고 예찬할 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선비의 거취를 '은거함'과 '벼슬함'으로 나누고, '은거함과 벼슬함'은 '의리에 합당한가와 시의에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꼭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하여 ~ 구차한 것은 아니다.'로 보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예로 든 인물들의 행위는 은거함과 벼슬함으로 각각 나누지만 모두 '마땅히' 그래야만 했던 것이기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은거함과 벼슬함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선택한 동기나 이유에 따라 옳고 그름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④ 이윤과 부열의 행위는 '나아갈 만하기에 나아간 것', 즉 '의리와 도에 대한 판단'을 거쳐 나아간 것이므로 합당한 처신이고, '뜻을 잃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㉓는 '이익을 탐하여 작록을 사양'한 인물이다. '이익'을 탐하는 마음에 따라 은거한 것이며, 글쓴이는 이를 마땅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벼슬함'이 아니라 '은거함'이 맞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이어지는 문장 '성현은 ~ 결정했을 뿐이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② '마땅히 떠나야 했기에 떠난', 즉 의리와 시의로 보아 합당한 처신이므로 '배반'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마땅히 벼슬에 나아가야 했기에 나아간', 즉 의리와 시의를 따져 선택한 행동이므로 구차하지 않은, 합당한 처신이라고 보았다. ⑤ '이름을 얻으려고 은둔'했다고 했으므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에 따라 은거한 것이고, 글쓴이는 이를 마땅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글쓴이는 '은거함(떠남)'과 '벼슬함(나아감)', '어질고·고상하고'와 '아침이 되고·구차한'과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물리서고 나아감은 행위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동기나 의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열거·반복하고 있을 뿐 점층적·연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거하거나 벼슬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극단적 상황 설정'으로는 볼 수 없다. ④ 은거함은 모두 높이 평가하고 벼슬함은 모두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은거함과 벼슬함 각각에 대한 일관된(편향한) 평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동일한 행동에 대한 모순된 통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거함과 벼슬함의 두 상황만 제시되었고,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과 상이한 판단'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5 '추녀가 미녀 서시의 웃는 모습을 흉내' 낸다는 것은 본질은 도외시한 채 겉보기만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서는 의리와 시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은거의 본질은 도외시

한 채 은거인 척만 하는 인물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따라서 진정한 선비가 아니면서 진정한 선비인 척하는 위선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론할 것도 없다’는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으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위선적이라고 본 것이지 신중하지 않다고(무모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③, ④ 예찬하거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이지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6** 종장은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나쁜’이라는 표현은 외로움보다는 혼자서 자연을 모두 즐기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를 못 만’났으므로 은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은거를 선택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의’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득군행도(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실천한다.)를 군자의 뜻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득군행도’는 ‘벼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때를 못 만’났다는 것은 ‘득군행도’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로, ‘벼슬함’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고반’은 자연 속의 삶을 의미하므로 ‘은거함’에 해당한다. 시의에 맞지 않아 은거한다는 의미이므로 ‘은거함’을 합당한 차선으로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본문 235~24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04 평사형 종결은 찾아볼 수 없다.
- 05 매화 가지, 단풍 등의 자연물은 드러나고 있으나,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은 아니다.
- 06 의문형 문장은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② 4 ④ 5 ② 6 • 표현 방법: 영탄법, 역설법 • 화자의 태도: 사랑하는 임을 떠난 상황이 행복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현재의 힘겨움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기 위한 시간이라는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1** ‘아십니까’의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자연물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후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꽃방울이 맺히거나 단풍이 드는 등의 변화는 드러나고 있으나 그것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⑤ 의문형 어미나 평사형 어미 등 행의 종결에 변화는 있으나, 이를 통해 정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2** ‘매화 가지’, ‘꽃방울’, ‘단풍’ 등의 자연물을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정면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쇠잔한 눈’은 소멸성을 지니고 있으나 꽃방울을 맺혀 준다는 점에서 생명력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계기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죽은 줄 알았던 매화 가지에서 꽃방울이 맺힌다는 것은 소멸이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됨을 드러낸다. ③ ‘일경초’는 아주 작은 존재, ‘장륙금신’은 완성된 이상적 존재라는 점에서 대조적 의미를 지니며 둘이 서로의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순환을 드러낸다. ④ ‘만유’는 모든 존재를, ‘소조’는 작은 새를 드러내는데 이 둘이 같다는 것은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는 세계관을 내포한다. ⑤ ‘~ 줄을 아십니까’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4** 1연과 2연에서는 겨울 → 봄, 여름 → 가을 등의 계절 변화 속에서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 현상을 후각이나 시각 등 감각적으로 그린 것은 맞지만, 화자의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단풍과 가을산의 정경이 드러나고, 단풍이 노래를 부르고 운다는 표현에서 의인화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상실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된다는 순환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비판적 현실 인식이나 현실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5** 이 글과 <보기>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붉은’과 ‘푸른’이라는 색채 대조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 글에는 색채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 줄을 아십니까’의 반복이, <보기>에는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등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사랑하는 임을 떠난 상황이 ‘아아 행복입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보기>에서는 얻는 것이 잃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역설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④ 이 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등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으나, <보기>는 계절의 순환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보기>는 ‘보아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의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 14 산에 대하여

본문 241~24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시의 첫부분과 끝부분이 비슷한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07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④ 4 ⑤ 5 ① 6 낮은 산은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고, 타인을 배려하며, 소박한 즐거움을 알고, 사람 사는 재미를 안다.

1 '산이라 해서 ~ 높은 것은 아니다', '~ 것(반)이 아니듯', '~ 것은 아니다'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친근하고 낯을 배려하는 산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산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에 대응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사람'과 '산'을 중첩하여 사람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적 대상인 '산'이 변화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⑤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 '낮은 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 화자는 '높은 산'과 '낮은 산' 중 어느 하나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감각적 심상을 의미하는 감각의 전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산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 ③ 부정형 어미를 사용하여 '높은 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에 주목하고 있다. ④ 자연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산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3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삶'이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화자는 '작은 산'과 '높은 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삶'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므로 사람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② <보기>의 '방물장수나 거간꾼들'은 큰 권세를 지니지 못한 이들로, 이 글의 '간난이네'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③ 타인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보기>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4 '모두 흰 구름을 쳐드랑이에 끼고'는 크고 높은 산의 특징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에 해당한다. 자연 친화적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얼드려 있'는 낮은 산은 민중을 의미하며 낮은 산이 시시덕거리는 모습은 낙천적 민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② '힘하고 가파른 산자락'은 크고 높은 산에 대응되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삶을 나타낸다. ③ 취녕굴이나 머루 병굴처럼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은 아니며 소박하게 살아가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5 <보기>에서는 '새벽녘 → 낮 → 해 질 무렵'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시적 대상인 산을 의인화하고 있다. <보기>에서 '산'이 먹지도 않고 말도 않는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는 산의 특성을 나열하여 주제 의식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④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등에서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는 모습이나, <보기>에서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주의하는 모습 등에서 알 수 있다.

15 능양시집 서

본문 247~25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이 글에서 글쓴이는 '까마귀'와 '미인'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지는 않고 있다.

06 색채 이미지를 통해 까마귀가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08 글쓴이와 관련된 조카 종선의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다.

11 글쓴이는 까마귀가 검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14 글쓴이는 '양 귀비'와 '번희'를 사례로 들어 미인이 이래야 한다는 미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을 지닌 '속인'을 비판하고 있을 뿐, '속인'이 '양 귀비'나 '번희'가 미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내신 9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③ 4 ④ 5 ② 6 ③ 7 까마귀, 미인

1 글쓴이는 '달사'와 '속인'의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를 대비하면서, 세상을 선입견과 고정 관념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주제의 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의문형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만 명령형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의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것엔 ~ 있지 않은 것이 없다.'를 통해 이중 부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중 부정을 통해 색과 형태를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④ 고사 속 인물인 '양 귀비'와 '번희'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⑤ 까마귀와 미인의 다양한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상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않고 있다.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백로와 물오리를 기준 삼아 까마귀와 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속인'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준거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글쓴이는 '까마귀'가 다양한 색채를, '미인'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심라만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본 것이 적은 사람'은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견문이 적은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조카 종선을 '동방의 대가'라 하면서 다양한 시체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애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 또한 너무 심하다.'와 '세상에 달사는 적고 속인이 많다.'를 통해 글쓴이는 선입견과 고정 관념이 만연한 세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A]에서 글쓴이는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해서 보지 말고 빛에 의해 황금빛, 연한 녹색, 비취색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사물의 고정된 형태와 색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4 ②와 제시된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조카 종선과 같이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이라는 틀에 박힌 사고에 사로잡힌 '속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글을 썼다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5 이 글의 글쓴이는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빠진 '속인'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를 통해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 빠져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삶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도원'이라는 이상향에 견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칭하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6 까마귀의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사물의 본질을 하나에 가두려는 고정 관념과 폐쇄적 사고를 비판한 것으로, 다양한 현상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선불리 이를 정해 버리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기 생각과 '한 가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만물'을 비방하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폐쇄적 사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는 인식은 '검다'라는 일률적 규정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사물이 '정해진 색'이 없음에도 한 가지 색만 고집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물'과 '옷칠'의 검은색이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습적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달사'가 적은 현실에서 글쓴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속인을 깨우쳐 주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16 박꽃이 피어난 집

본문 254~26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글쓴이가 전해 들은 과객의 이야기를 직접 제시하고 있지만, 고사 속 인물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 08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글쓴이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여관집 머슴이 대비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글쓴이나 여관집 머슴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09 글쓴이의 집은 매우 좁고 작지만,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창문이 열에 달아오른다고 하였으므로, 방에 해가 잘 든다고 할 수 있다.
- 12 여관집에서 잠자리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
- 16 과객은 글쓴이가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① 4 ③ 5 ③ 6 ④ 7 '여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사람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이 글에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현

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관집 머슴과 종'의 모습을 대비하여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말이나 글에서 의미하려는 내용과 반대로 나타내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지만, 이를 고사를 활용하여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④ '한여름', '모기' 등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표현 그 자체에서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과객'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방의 열기와 함께 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껴 잘 만한 다른 곳을 찾아다녔다. 따라서 '과객'이 잠 자리의 불편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지방 수령이나 사신들은 ~ 과객들이 하루이틀 묵는 곳입니다.'를 통해, 신분에 따라 잠자리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매우 좁고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온갖 벌레에 물리고 뱀에게 물릴까 봐 걱정과 피곤이 심해져 소갈병과 우울증을 얻게 된다. 따라서 '나'는 열악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서울에서 찾아온 과객이 있어 ~ 사연을 들려주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여관집 머슴과 종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행인들이 남긴 음식을 받아먹고 있지만, 이에 불만을 품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삶을 운명과 분수라 여기며 천수를 누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관의 머슴과 종은 자신들이 처한 삶을 운명이라 여기고 순응한다고 할 수 있다.

3 [A]에서 나그네는 '나'에게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여관 중의 여관에서 지내면서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아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그네는 '나'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서울에서 온 과객이 여관집의 머슴과 종에 대해 ③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머슴과 종이 지금의 삶을 본래부터 정해진 운명이라 여기며 지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여관집의 머슴과 종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서 천수를 누린다고 한 것이다.

5 ④는 화자인 '나'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⑦는 글쓴이인 '나'가 살아가는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글쓴이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박을 심었지만 살기가 더 어려워졌고 병까지 얻게 되어 열악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⑦와 ④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공간이지만, ⑦는 열악함을 느끼는 공간, ④는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⑦는 글쓴이의 소망과 관련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④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있으므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⑦는 글쓴이가 고통을 겪는 현실적인 공간이지 이상적인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④는 '나'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⑦는 '나'가 현재 불만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으므로 갈등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과객의 말을 듣고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으므로 ④를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②, ④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현재의 삶을 사는 현실의 공간에 해당하므로 화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6 과객이 ‘이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이라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은 글쓴이인 ‘나’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역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임을 드러낸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는 ‘나’가 현재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과객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글쓴이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과객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를 통해 이 글이 글쓴이인 ‘나’가 유배 생활 중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 ‘나’는 ‘소갈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겼다’고 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의 ‘우리 같은 과객들이 하루이를 묵는 곳’을 통해 과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여관집의 머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여관집의 머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나’는 과객의 말을 다듬어 벽에 적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행위는 과객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오래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7 한데서 올라

본문 261~26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만, 인물 간의 관계 변화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 07 대화 과정에서 번개탄 장수에 대한 정희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있다.
- 08 구체적인 시골 공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11 정희는 남편의 카풀 때문에 이사를 가려는 것이 아니다.
- 13 정희는 번개탄 장수가 내는 소음 때문에 불만인 것이지, 그가 폭세 번째에 온 것 때문에 불만인 것이 아니다.
- 16 정희는 번개탄 장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번개탄 장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희가 번개탄 장수를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③ 4 ⑤ 5 ② 6 ① 7 파란색 작은 트럭 8 ‘눈물’은 불안과 서러움의 표출이자 번개탄 장수와 아이로부터 받은 위안에 대한 반응이다.

1 의식의 흐름은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느낌을 그대로 적는 기법으로,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정희의 생각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 정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그런데 왜 정희는 도시로 다시 나오려 하는 것일까’, ‘왜 자신으로서 절실한 이유가, 문제가 타인들에게는 하찮고 우습고 그래서

짜증 나는 것이 될까.’ 등에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정희와 번개탄 장수의 대화를 통해 번개탄 장수의 인심 좋고 인간미 넘치는 성격은 알 수 있다. ⑤ 정희가 번개탄 장수의 소리로 인해 방해 받은 사건 등을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정희와 번개탄 장수가 만난 사건은 현재형으로 서술함으로써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그 여자’로 인한 정희와 남편의 갈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번개탄 장수의 소음으로 정희는 불쾌함을 느꼈다. ③ 정희는 번개탄 장수를 보고 모른 채하며 원고개를 틀었다가 “오늘 아침에는 안 오셨던가요?”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번개탄 장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침에 안 오더니 기어코 오후에 온 모양이군, 속으로는 빼죽거리는 심보면서.’에 잘 나타나 있다. ④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쓸쓸한 모습이었으나, 시골에서의 생활을 통해 따스하게 변화했다. ⑤ 정희가 시내에서 만난 남자는 정희에게 합부로 대한다는 점에서 폭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희가 물건을 사고 지갑이 없어 외상으로 해 달라고 했으나, 이를 번개탄 장수가 용서해 줄 일로 보기는 어렵다. 정희는 오히려 외상을 싣듯 주는 번개탄 장수의 인심을 느낀다.

**오답 해설** ① 지갑이 없어진 정희는 번개탄 장수에게 외상을 달아 놓으라고 하면서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라며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드러낸다. ② 정희는 처음에는 번개탄 장수의 트럭을 보고 못마땅해하나, 운전석 옆자리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고는 트럭을 멈춰 세운다. ④ 정희는 아기를 낳은 엄마 때문에 아빠를 따라다니는 어린것한테 마음이 끌려 아부래기까지 사고 있다. ⑤ 정희는 번개탄 장수가 연탄 때는 집을 위해 번개탄을 판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낀다.

4 정희가 번개탄 장수에게 외상을 달아 놓으라며 자신이 사는 곳을 아냐고 묻는 것은, 그에게 마음을 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희와 번개탄 장수가 이웃사촌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번개탄 장수의 규칙적인 모습이 드러난 구절이다. ② 정희는 번개탄 장수의 반복되는 확성기 소음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③ 정희는 시골에 이사 온 후 번개탄 장수의 소음에 불편함을 느껴 그와 마주치기를 꺼리고 있다. ④ 번개탄 장수는 연탄 때는 집을 배려하여 번개탄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를 통해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5 ‘남편은 틀림없이 그림 달나라에 가 살라고 하기도 남을 거’라고 한 것은 서술자가 남편의 심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희의 추측을 제시하여 남편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초점 화자인 정희의 심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③ 정희가 고통받는 소리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로 인한 그녀의 심리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④ 번개탄 장수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정희의 행동을 통해 그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정희와 사내와의 대화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을 보여 준다.

6 이 글은 정희라는 초점 화자를 통해 그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을 취하면 사건의 전모가 제한적으로 전달된다.

**오답 해설**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간접 인용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나, 갈등의 심화 양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 있지만, 행동의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인물 간의 갈등은 개인적인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관념적 지식인 대 실존적 민중)에서 비롯된다.
- 06 '나'가 김선두를 일방적으로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선두의 일침을 통해 '나'가 잘못된 인식을 깨닫고 성찰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 10 김선두는 어장이 망가진 다른 어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할 뿐, 자신의 어장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 11 '나'가 김선두의 행동에 호젓이 웃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김선두로부터 호된 반격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웃음의 원인은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이며, 김선두의 주장에 대한 동의나 공감과는 관련이 없다.
- 16 김선두는 생활 하수나 공장 폐수가 아니라, 바다를 뽀뽀하게 점령한 양식장 시설물을 바다 오염의 첫 번째 주범으로 꼽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① 4 ④ 5 ④ 6 김선두의 발언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

- 1 바다 오염에 대한 '서울 낚시꾼'과 '김선두'의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배경 묘사가 일부 제시되었지만,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갈등의 지속 또는 심화 양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③ 방언이나 비속어가 사용되었지만 인물의 '희극적 성격'을 부각하는 핵심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과거 경험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현재의 성격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A]에서는 외국 화물선의 기름 유출 사고와 그로 인한 어민 피해를 대화로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B]에서는 김선두가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동을 서술하고, 이에 대해 서울 낚시꾼이 못마땅함을 느끼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사고와 그 피해 상황을 대화로 전달하는 부분이다. 또한 [B] 역시 인물의 '외양' 관찰이 아니라 행동 묘사가 중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A]에는 인물 간의 의견 차이가 일부 나타나지만, 이를 대립 구도로 부각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B]는 인물의 상반된 심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반복적 행동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이 있다. ③ [A]는 직접적인 관찰 장면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전언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객관적 사실의 직접적 관찰'로 보기 어렵다. [B] 또한 인물의 내면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 제시가 중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B] 역시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요약적 서술이 아니라 현재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⑦의 '오히려'는 김선두의 갑작스러운 욕설에 대해 서울 낚시꾼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말실수로 호된 반격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호젓이 웃는' 반응을 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정서 반응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므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홀홀'은 쓰레기를 가법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동작을 형상화하여 김선두의 무심하고 반복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실쫓한'은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 비스듬히 흘겨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혼계에 순응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거나 뒤돌린 심사를 드러내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과연'은 앞선 발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김선두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속속들이'는 어떤 사정을 남김없이 자세히 알고 있음을 뜻하는 말로, 김선두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바다 오염의 실태와 원인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4 ④에서 김선두는 자신의 종이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반발하며, 오염의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어 그는 양식장 시설로 인해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오염이 쌓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원인과 다른 지점을 강조하며, 바다 오염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시설에 있음을 주장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김선두는 양식장 구조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 오염 문제를 특정 지역 문제로 한정하려는 내용은 ④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③ 김선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는 일부 드러나지만, 발화의 중심은 오염의 원인을 다른 구조적 요인에서 찾는 데 있다.

- 5 김선두는 자신이 버린 종이 조각이 바다 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반발하며, 오염의 원인을 개인의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 대규모 산업 활동과 양식 구조 등 사회적·구조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소한 영향까지 엄격히 성찰하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서울 낚시꾼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비판하는 장면은 자연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기름 유출로 어장이 피해를 입는 모습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다시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여 주므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양식장 시설의 과도한 설치와 연착으로 오니가 적체되는 상황은 자연을 수단화한 개발 중심 사고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기름 유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는 인간 역시 자연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글쓴이의 사색과 고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06 참나무의 말을 직접 인용 부호로 제시하지 않고 간접적·상상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08 대상과의 교감은 드러나지만,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10 녹슨 못이 박힌 참나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손으로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고, 그다음 주말에 장도리를 챙겨가서 빼낸 후 후련함을 느꼈다.
- 14 겨울에 다시 찾은 참나무의 못을 빼냈던 자리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 15 잎을 떨군 참나무를 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들리는 삶을 성찰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한 그루 나무 6 바가지들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대못은 삶의 편리를 위해 자연에 폭력을 가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를 상징한다.

- 1 봄의 연둣빛 잎, 겨울에 잎을 떨군 모습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참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표면적으로 모순되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활용한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참나무의 변함없는 속성을 글쓴이의 쉽게 흔들리는 마음과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인간의 유한한 삶과 연결 짓고 있지는 않다. ⑤ 나무의 말은 나무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상상한 것이다.
- 2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를 통해 못을 빼낸 자리가 아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 글쓴이는 참나무가 자신에게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꼈으며, 참나무를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우주나무로 여겼다(ㄱ). 글쓴이는 마음이 심산하거나 공허할 때 참나무를 찾아갔으며, 참나무가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준다고 느꼈다(ㄴ). 글쓴이는 잎을 다 떨군 참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 흔들렸던 자신, 상처받고 원망했던 시간, 타인을 위해 변함없이 서 있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글쓴이는 참나무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ㄷ). 글쓴이가 참나무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ㄹ).
- 4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나무의 덕성과 태도를 예찬하며 그것을 본받아야 할 삶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바가지들 걸어 놓기 위해 참나무에 대못을 박은, <보기>에서는 나무에 칼로 이름을 새기고 가지를 베어 가는 인간의 행태를 엿볼 수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보기>는 이 글과 달리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인요, 인본지족의 현인이다.'와 같이 나무의 속성을 나열하며 그 덕성을 예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보기>와 달리 참나무에 박힌 녹슨 대못을 빼내는 구체적 체험을 통해 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0 참회록

본문 281~28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 07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09 4연에서 화자가 밤마다 겨울을 닦는 행위는 자아 성찰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0 화자는 치열한 자아 성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맞게 될 미래의 모습을 비극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시어: 우물 · 공통적인 역할: '거울'과 '우물' 모두 사물을 비추는 것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7 화자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아 성찰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1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 '밤'과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즐거운 날'을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명시형으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지 않다. ③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명령형 종결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찾아볼 수 없다.
- 2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 욕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은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3연의 마지막 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대지도 목될까', '부끄러운 고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어느 즐거운 날'은 화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조국 광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거울'을 닦는 행위로 표현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3 '홀로 걸어가는 / 슬픈 사람'은, 4연에서의 치열한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결과이다. 즉, 화자가 선택하게 될 자신의 삶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견겨 될 길이 외롭고 슬픈 희생의 길이라는 것과 함께 기꺼이 이를 감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제시된 '거울'이 '구리'로 되어 있고 '녹'이 끼었다는 것과,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화자의 성찰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② '이다지도 욕필까'라는 탄식을 통해 화자가 '거울'을 매개로 성찰한 결과가 부끄러움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자가 지난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보기>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식민지 조국을 떠나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데서 오는 자책감과 더불어, 부정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밤'이 지나고 미래에 맞게 될 조국의 광복이라고 볼 수 있다.

**4** '밤'은 암담한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의 성찰이 심화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합일을 이루는 것과 '밤'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밤'은 '즐거운 날'과 대립되는 부정적 이미지로, 화자와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시간, 즉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③ 화자가 기다리는 미래의 '즐거운 날', 즉 광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정적 현실에 맞서 화자가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참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 글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지식인이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적 다짐이, <보기>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정(善政)을 베풀겠다는 내적 다짐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1연에서는 '내 얼굴'에 대해 '욕'되다고 하여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관련이 없다. ③ <보기>의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化龍)소가 되었어라.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어라.'에서 화룡소의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겠다는 이상 실현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1 녹을 닦으며 - 공초 14**

본문 287~29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글은 전반적으로 과거형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
- 03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06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다.
- 07 색채어가 사용되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 09 화자의 치열한 자기반성은 있으나, 부정적인 것을 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③ 4 ② 5 ④ 6 '녹'이 내면에 축적된 회한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녹을 닦'는 행동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쌓인 부정적 흔적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슬픈 역사'라는 추상적 관념을 '돌혀 있는 비늘'로 표현하여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대조적 시어의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글에는 점층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는 '티끌 → 땀방석 → 동산'과 같이 점층적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엄격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흑갈빛', <보기>에는 '질푸른'의 색채어를 찾아볼 수 있다. ② 이 글에는 '비늘처럼 촘촘히 돌혀 있는'에, <보기>에는 '닐떠란 바다처럼',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이 글의 화자는 '대문의 녹'을 바라보며, <보기>의 화자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④ <보기>는 '~수는 없을까'의 의문형 어미를 통해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이 글의 '녹'과 <보기>의 '바다'는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감정 이입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바다'는 화자와 대조적인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존재이지만, '대문의 녹'은 이상적 존재가 아니다. ④ '바다'는 화자가 닦고 싶은 대상으로, 고난에 찬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지닌 존재로, 화자의 현실을 드러내는 대상이 아니다.

**4**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은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지독한 녹'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뽀얀 사랑까지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음'을 보고'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순수한 사랑도 녹슬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대문의 녹을 제거하는 것처럼 순수한 모습을 되찾으려는 화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5** '땀방울'은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존재로서, 미약하지만 버티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오랜 시간 방치된 '흑갈빛 대문의 녹'을 통해 화자 내면에 축적된 회한과 죄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손이 아린 줄도 모를 만큼 녹을 닦는 모습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치열한 행위임을 드러낸다. ③ '회한'의 슬픈 역사'를 '비늘'에 비유한 표현은 기억과 후회가 촘촘히 쌓여 있는 내면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⑤ '온몸으로 온몸으로'의 반복은 화자가 자신의 삶과 내면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2 선부 자화상**

본문 293~29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자화상과 '선부'라는 호를 바탕으로 한 삶의 성찰을 드러낼 수 있다.
- 02 자화상을 그리며 글쓴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낸 글이다.

- 05 글쓴이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골고루 서술하여 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06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학적이고 고압적인 말투라고 보기는 어렵다.
- 09 '괴석'은 이상하게 생긴 돌을 말하므로 잘생긴 얼굴로 평가하기 어렵다.
- 10 글쓴이는 스스로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13 글쓴이에게 있어 우울은 예술의 근원이 되는, 불량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 17 아내는 글쓴이의 외모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선부'라는 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의심하지만, 양심에 꺼리는 일을 저지르고 나면 곧 참회하는 것으로 보아, 선량하게 사는 삶을 지향한다.

- 1 자화상을 그리게 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얼굴을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한 후, 자신의 호에 대한 성찰과 자각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대안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반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⑤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다.
- 2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와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는 있으나 사물을 통해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옛 추억에 대한 아련한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와 호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세상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아내의 말을 끌어온 이유는 글쓴이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선부'라는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신이 '선부'라는 호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한 글쓴이는 '불선부'라 불리는 것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⑤ 자신의 외모를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글쓴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4 아내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하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 얻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보자꾸나'와 같은 말투를 통해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좁고 짜부러진 양미간을 자신 내면의 우울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③ 우울이라는 감정을 자신의 예술 창작과 연관 짓고 있다. ④ 앞쪽에서 자랑하던 자신의 외모를 '추남'이라는 말로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 5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와 '선부'라는 호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선량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지나온 삶을 후회한다고 볼 수 없다. <보기>의 화자는 지나온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므로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에서 '자화상'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호인 '선부'에 맞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호인 '선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애증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평생에 소원이 어찌하였으면 선량하게 살아 볼까 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 멀치** 본문 299~30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06 '멀치'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바닷속, 건어물집 5 ㉤ 6 ㉥ 7 생명력을 빼앗는 존재를 상징하는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 행위를 통해 생명력 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1 '물결', '바닷속', '바다'와 '그물', '바람', '햇볕' 등을 대조하여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적 표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의문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명사형 종결은 찾아볼 수 없다. '-것이다'의 종결이 반복되고 있다. ④ 멀치라는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나, 멀치를 부르는 방식은 활용되지 않았다.
- 2 '멀치'는 생명력 회복이라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생명력을 잃은 멀치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화자가 바라보는 멀치는 이상적 대상이 아니다. ④ 멀치는 화자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⑤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3 [A]에서 화자는 튀겨진 멀치의 몸통에 새겨진 물결 무늬를 보면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멀치가 다시 바닷속에 이르는 독특한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현재 부정적 공간에 놓여 있게 된 대상의 신체 일부에서 과거에 그 대상이 존재했던 공간의 긍정적 이미지를 역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눈에서 야생의 초원을 떠올리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발상이다.

**오답 해설** ① 그림 속 대상의 과거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화가와 관련짓고 있으므로 유사한 발상으로 볼 수 없다. ② 지난날의 한 맺힌 그리움을 긍정적 이미지라고 볼 수 없다. ④ 과거에 대상이 지녔던 모습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에 유사한 발상이 아니다. 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과거의 모습에 대한 떠올림이 아니므로 유사한 발상이 아니다.

**5** [D]에서 바다 물결은 화자가 멀치 볶음의 멀치를 보면서 떠올린 주관적인 상상이다.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멀치 때가 유유히 움직이는 것은 바닷속에서 생명력을 지니고 자유로웠던 때를 보여 준다. ② '그물'과 '햇빛'은 멀치를 바다로부터 분리하고, 말라가게 하여 생명력을 잃게 하는 대상이다. ③ 굳어가는 멀치는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④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는 것은 멀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는 것으로,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소망을 드러낸다.

**6**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는' 행위는 멀치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유유히', '무수한 길래의 길'에서 멀치가 본래 바다에서 자유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물'은 물결과 멀치를 분리시켜 생명력이 사라지게 한 외부적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길거리'에 쌓'이고 이후 반천으로 식탁에 오르는 멀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멀치 볶음을 관찰하면서 '지느러미'와 '물결'이라는 멀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 버팀목에 대하여

본문 305~31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5** 감탄사는 화자의 놀람, 느낌 등을 표현하는 말로, '아, 오오'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또한 이 글은 성찰적 어조가 나타날 뿐 화자의 감정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08** 이 글의 각 연은 '-니니다'의 높임 표현으로 종결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③ 4 ③ 5 ④ 6 시련을 이겨 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1** 이 글에서 '버팀목'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지탱해 주는 대상으로, 계 역할을 다한 후 '이윽고 삭아 없어지'는 존재이다. 화자는 자신 역시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사라진 것은 '버팀목'과 화자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화자는 이들을 떠올리며 희생과 배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노래하고 있을 뿐, 아쉬움과 회한의 정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의지한 채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자연과 인간 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개인적 상실과 그에 따른 고통은 나타나 있지 않

다. 또한 자연은 깨달음을 주는 대상일 뿐, 자연을 통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죽은 산 나무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죽음과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글은 유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점층적 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화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일 뿐,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산 나무'와 '죽은 나무'는 각각 태풍에 쓰러진 나무와 이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을 의미한다. 두 소재는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③ 이 글에서는 '- 습니다'라는 높임의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경어체의 사용을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5연의 '허위허위'는 손발을 이리저리 내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일상에서 힘겨워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이 글은 유추를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 확장을 보여 주고 있다. '버팀목'은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과 유사하며, '나무'는 '나'와 유사하다. 3연에서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 뿌려주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버팀목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사라진 이웃들'보다 '죽은 아버지'와 더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버팀목 덕분에 생명력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타인의 희생 속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죽은 각목 덕분에 삭이 트고 잔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는 사라진 존재가 현재의 삶을 지탱하게 해 주는 실존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다'는 것은 버팀목이 쓰러진 나무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도와줬다는 것으로, 화자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버팀목'과 '죽은 아버지', '사라진 이웃들'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고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존재들이다.

**4** ㉠은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지탱해 주다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생명력을 회복한 나무와 삭아 없어진 버팀목이 동일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산 나무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죽은 나무는 버팀목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관찰한 대상으로,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각목으로 만든 버팀목으로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에서 '잔뿌리'는 나무가 버팀목에 기대어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에서 '사라진 것'이 산 나무를 버티게 한다는 것은 역설적 표현이다. 이는 버팀목의 배려와 희생이 나무가 시련을 이겨 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화자의 인식 확장의 계기가 된다. ⑤ ㉠에서 화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며 화자가 깨달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5** 이 글의 '나무'에는 태풍에 쓰러진 대상이 다른 대상인 버팀목의 도움을 받아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의 '감나무'에는 '젓은 바람 속'에서 다양한 가지들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분수를 지키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나무'는 '태풍'에 쓰러졌다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에 좌절했다가 '삭이 트고 다시 / 잔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감나무'는 '젓은 바람'과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좌절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의 '감나무'는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들을 보며 휘방 놓는 법이 없이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며 의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나무'는 의인화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의 '나무'는 싹이 트고, 잔뿌리가 나며,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의 '감나무'는 젖은 바람이 부는 겨울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기>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치에 대한 형상화가 나타날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의 '나무'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은 '버림목'이다. <보기>에는 감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다른 삶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5 뿌리가 꽃이다

본문 311~31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드러나는 '꽃'과 숨겨진 '뿌리'를 대비하여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05 관찰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의 확장으로 성장로 이어지지만, 빈번한 시간의 역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9 수선화 화분을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고 지냈던 자신을 반성하며 수선화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 10 글쓴이의 아파트는 1층이고 서향이라 햇빛이 잠깐만 들어오기 때문에 화초가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였다.
- 12 '회사후소'는 본질적 가치가 있는 연후에 꾸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 14 다산 주막에 다산의 조각상이 없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 17 글쓴이는 뿌리가 곧 꽃이라고 이야기하며, 꽃과 뿌리를 구분하여 꽃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④ 4 구근(뿌리) 5 ⑤ 6 ④ 7 화려한 결과물인 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본질과 바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1 이 글은 '베란다의 수선화 화분'이라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여, '본질의 가치'라는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사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자연물(수선화)을 통해 교훈을 얻기는 하지만, 문명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인 정약용과 주막 주모의 일화를 활용하고 있다. ④ 일화를 인용하는 목적은 인물 예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본질을 지키는 삶'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화가 나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수선화의 성장을 다루기는 하나, 주된 목적은 외양 묘사가 아닌 내면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다.
- 2 글쓴이는 다산 주막에 주모 모녀의 조각상이 있는 까닭은 주모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화초가 잘 죽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수선화가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② 글쓴이는 수선화가 척박한 환경을 견디고 개화한 원동력은 어둠 속에서도 본연의 가치를 지닌 구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수선화 구근을 보며 남과 비교하고 겉모습(꽃)만 중시하며 가식과 허상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성찰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다산이 유배라는 시련 속에서도 애국과 애민이라는 선비의 본질을 끝까지 실천했기에 오늘날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잊고 있던 수선화가 싹을 틔운 모습을 보며, 글쓴이는 자신의 가식적인 삶을 성찰하고 본질의 소중함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게는 하지만, 미래를 단순히 낙관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② 수선화와 글쓴이는 교감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므로 거리감이나 고독과는 무관하다. ③ 타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글쓴이는 꽃이 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며, 베란다 구석에 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 5 글쓴이는 스스로 '가식과 허상의 껍질' 속에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면의 결핍을 채워야 한다기보다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수선화가 겪는 시련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 생활'과 대응되어, 본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② 존재를 지탱하는 내면의 힘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착했던 글쓴이의 삶에 대한 자성(自省)을 담고 있다. ③ 글쓴이는 주체적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맞춰 살아온 가식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④ '토양'에 관한 질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자'의 명성보다 그것을 묵묵히 길러내는 '바탕'의 헌신이 지닌 근원적 가치를 일깨워 준다.

- 6 이 글에서 '주모'는 생명 유지라는 '본질'을, <보기>에서 '님'은 시련에 굴하지 않는 지조라는 본질을 중요시한 인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만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수선화'와 '황국화'는 모두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켜 냈다. ② 이 글의 '추위와 어둠'은 '수선화'에게, <보기>의 '풍상'은 '황국화'에게 시련을 주는 환경이다. ③ '가식과 허상의 껍질'은 실제의 본질을 잃은 상태, '도리'는 시련에 굴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대상이다. ⑤ '동백 나무'와 '도리'는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한 존재, '수선화'와 '황국화'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존재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 26 잘 익은 사과

본문 318~32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6 다양한 삶의 국면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입양 가는 아가'는 부정적 사회 현실로 볼 수 있지만 삶의 국면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비애감을 상징하는 '유모차', 시간의 순환과 고통의 완화를 의미하는 '자전거 바퀴' 등의 상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내신 C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㉔ 3 ㉕ 4 ㉖ 5 ㉗ 6 자전거 바퀴가 돈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 속에서 점차 다듬어지고 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을 도는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고통과 슬픔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완화되고 포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 아가’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사과를 먹는 모습은 삶의 순환 속에서 상처가 망각과 돌봄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을 돌고 있으므로 고향 마을의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전거 바퀴의 회전과 사과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연상 과정의 일부로 작용할 뿐, 과거에 대한 향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자전거 바퀴의 회전’과 ‘가을’ 등은 순환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처의 치유와 관련될 뿐, 허무와 무상감과는 관련이 없다. ④ ‘입양 가는 아가’나 ‘노망든 할머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강조가 아닌 삶의 다양한 국면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처가 망각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연상적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⑤ 이 글은 고향 마을을 도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망각과 치유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2 1, 2, 4행은 ‘소리’라는 시어로 시행을 종결하여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이미지의 연쇄 작용이 일어남을 드러내고 있고, 8, 10, 14, 17행은 ‘-네요’라는 어미로 시행을 종결하여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어의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네요’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글은 이미지의 연쇄 작용과 국면의 전환을 통한 대상(아가, 할머니)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날 뿐 실제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는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속성이 부각된 대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대상을 통한 화자의 정서는 나타나지만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3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글은 과거의 상처가 제거되기보다 반복과 순환의 흐름 속에서 상처가 완화되고 포용되는 인식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전거가 ‘둥글게 길을 깎아 내’는 것은 삶의 굴곡이 반복과 순환 속에서 다듬고 다독여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은 고통을 제거한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4행에서 자전거 바퀴 소리가 여치 소리와 나락들이 뿔아지는 소리로 치환되어 연상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즉, 일상적 경험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도는 행위를 하는 중에 접한 다양한 청각적 심상이 연상 작용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모차에 실려 입양 가는 아가의 모습은 삶의 고통과 비애감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연상 전개는 일부로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국면이다. ③ <보기>에서 이 글에서 삶의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 아가’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비애감이 천천히 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할머니’는 삶의 상처가 제거되기보다 조정되고 포용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 이 글에서 사과를 먹는 사람은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로, 슬픔

을 망각하고 상처를 잊는 것을,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화자의 의지가 사과를 먹는 행위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을 도는 행위에서, <보기>는 사과를 먹는 행위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사색을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는 사과를 먹는 행위가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력, 우주로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이 글에는 점층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보기>의 마지막 행에서 ‘내가 사과를 먹는다’는 상황이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상황으로 사고가 확장되어 있다. 이는 화자 자신과 ‘사과’가 같은 생명으로 서로 순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이 글에서 ‘사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아 내고’ 있는 모습에서 연상 과정을 통해 나타난 상상적 산물이다.

5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 아가’는 여리고 상처 입은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엄마를 떠나 먼 나라로 가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고통과 비애가 응축된 삶의 국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㉑이 입양을 가는 아이의 모습을 구체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㉒은 화자의 연상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국면일 뿐,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또한 화자의 연상 과정에서 하나의 삶의 장면으로 제시될 뿐, 성찰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과거 회상의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화자가 동네를 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시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㉒은 한 번만 등장하므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⑤ ㉒은 엄마와 떨어져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과 희망이 아닌 삶의 고통과 비애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7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본문 324~32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강’이 인생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글은 감정이 절제된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내신 C수능 대비 문제

1 ㉒ 2 ㉔ 3 ㉕ 4 ㉖ 5 ㉗ 6 • 표현 방법: 직유법을 사용하여 동지를 텅 빈 곡식 창고에 비유하였다. • 효과: 어떤 것을 지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을 강조한다.

1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이’ 등은 우리말의 어순상 ‘누가 있을까’가 마지막에 나와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도치법이 사용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치법이 사용된 ‘누가 있을까, ~지 않은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삶과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4행의 '큰 꽃나무가 붉더니'에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꽃이 지닌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식은 허름'이라는 소멸의 이미지와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롭게 발견한 삶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강'으로 대표되는 순환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을 뿐 상승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의 변화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화자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만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⑤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고'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다양한 변화의 장면을 마주하던 화자가 회고하는 장면일 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집'은 삶을 의미하고,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대비적 표현이다. 그러나 '돌담을 돌렸으나 유량과 흐름을 지닌'은 의미상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돌담을 돌렸'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량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 즉 삶의 흐름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초생을 보여 주더니 마른 풀과 살얼음의 주저앉은 둥근 자리를 보여 주었다'는 것은 대비를 드러낸 것으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시작과 소멸의 국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법고 상쾌한' 유모차의 이미지와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를 대비함으로써 삶의 시작과 쇠락이 공존하는 삶의 국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A]는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만나는 다양한 삶의 국면을 '탄생과 번성', '쇠락과 소멸'의 이미지로 대비하여 삶은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동일한 통사 구조 안에 삶과 죽음을 배치함으로써 죽음 또한 삶의 연장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3**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이'는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않은 이는 없음을, 도치를 활용하여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는 삶의 흐름에서 상실감과 무상감은 인생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으로, 화자가 돌아오지 않은 이를 찾는 탐색을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혼이 유빙처럼 떠가는 것은 시간과 운명에 맡겨진 존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여정에서 화자가 통찰한 것이다. ② '꽃나무'는 희망을 의미하며, 이것이 '식은 허름'이 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공허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삶의 다양한 국면 중 하나로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③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은 것은 화자의 개인적 체험이지만, '누가 있을까'라는 반복적 질문 속에서 이런 상실감이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와 강과 헤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행위는 화자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인생의 무상감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관조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4** 이 글은 삶의 국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장면을 통해 삶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양방향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인생의 무상감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삶의 전반적인 국면에 대한 것이지, 특정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었다는 표현을 통해 가까운 이가 먼저 죽은 개인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는 부인과의 사별이라는 개인적 체험이 드러나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상실감을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중략> 이전에는 '당신'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중략> 이후에는 '당신'과 재회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실과 비애를 바탕으로, 결국 세상에 홀로 남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조하고 있다. <보기>는 사별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죽음에 관해 성찰하고 있고, <보기>는 죽어서라도 '흙과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당신'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5** '맨몸'은 인간 본연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맨몸에 상복을 입혀 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상태가 언제나 죽음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상복'은 죽음을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감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죽음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기보다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상복'을 죽음에 대한 초월 의지로 해석하면 작품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성찰과 어긋나게 된다. ②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은 것은 개인적 비극이지만, '맨몸에 상복을 입혀 주'는 행위를 통해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상복'은 개인적 비극의 강도를 부각하기보다는 개인적 상황이 보편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로 이해해야 한다. ③ '상복'을 통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회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실감을 지나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⑤ 이 글은 상실감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극복하거나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8 길의 안내자들

본문 330~33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터널은 어둡지만 항상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 의미도 내포한다.
- 04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이거나 과장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며, 해학적인 성격을 지니는 작품도 아니다.
- 05 '사진 속의 웃음'은 기억나지 않는 찰나의 행복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위로가 됨을 긍정하는 것이다.
- 08 글쓴이와 대조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수십 년의 여행은 대부분 실패였다고 하였다.
- 13 '향도'는 지도를 팔지 않고, 직접 차에 동승하여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 15 중국에서 길 안내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아주 싸다고 언급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① 4 ③ 5 ⑤ 6 '동전'은 고단한 인생을 견뎌 낸 끝에 얻게 되는 소중한 대가로, 삶의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1** 중국 다렌의 '향도'라는 대상의 모습과 역할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숭고한 생의 대가'라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현재 관찰과 사색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용이 전개될 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③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드러나지만,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삶'의 지향점은 거리가 멀다. ④ 실제 여행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기술한 수필이며, 가상의 상황

을 설정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삶의 고단한 단면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를 비판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향도들의 손에 들린 동전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 담긴 숭고한 결실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수십 년의 여행이 대개 실패였을지라도 사진 속 찰나의 웃음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였다. ② '낯선 이가 지시하는 길이 완전히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③ 향도들은 직접 차에 타서 길을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⑤ 실경 낯선 길이라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지시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3** [A]에는 길 안내자들의 모습에서 삶의 이치를 이끌어 내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①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민주적 토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봄과 겨울의 상반된 특징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③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하여 가정, 국가, 천하로 범위를 점차 넓혀 가며 의미를 강조하는 점층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④ 대중문화의 수용 방식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는 분류(구분)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⑤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4** 동전을 '숭고한 생의 대가'라고 한 것은, 액수의 적고 많음(경제적 가치)과 상관없이 고된 노동의 과정을 견뎌 낸 삶 그 자체의 존엄함을 인정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타인에 대한 신뢰와 소통의 필연성'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② 향도의 결연한 태도가 안내를 받는 이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직업적 태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④ '가난한 귀로'와 '헛 빈 손은 아닌 것'의 대비를 통해 과정의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는 <보기>의 맥락과 일치한다. ⑤ 터널을 바깥과 연결된 통로로 보는 관점은 고난 너머의 희망을 생각하는 글쓰이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5** <보기>에서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지상'은 화자가 처한 냉혹하고 가혹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외부와 단절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신발 치수의 대비는 가장의 부양 의무를, 동전은 노동의 구체적 결실을 상징한다. ② 두 작품 모두 외부 세계의 척박함을 '길'의 속성으로 형상화하여 인물의 삶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다. ③ '미소'는 가족을 삶의 버팀목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결연한 지시'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길 안내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보기>의 화자는 자기 삶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묵묵히 견디고(수용) 있으며, 이 글의 '길 안내자'는 관찰 대상이기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면은 알 수 없다.

## PART 4 | 실전학습

### 01 황새결승

본문 338~34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동물이 등장하는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갈등의 전개와 해결 방식은 뇌물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원리에 따르고 있다.
- 06** 부자가 서울로 상경하는 과정이나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08** 역사적인 사건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 09** 부자는 가산이 풍족하여 친척의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였으며, 이 웃들에게 송덕을 입는 인물이다.
- 13** 관원은 원정을 보고도 "일후 좌기 시에 처결하리라" 하며 여러 날 동안 판결을 미루었다.
- 15** 부자는 판결의 부당함을 소리를 내어 아뢰고 싶었으나, 자칫 '관전 발악'으로 몰려 패를 맞거나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③ 4 ㉠ 액자식 구성, ㉡ 풍자(비판) 5 ③ 6 ② 7 법 집행이 엄격한 기준 없이 권력이나 돈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실력보다 부정한 수단이 통용되는 당대 세태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 지속 물질 또한 아닌지라' 등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나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주관적인 논평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을 전환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 간 갈등의 원인(재산 분할 요구)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와 인물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④ 인물의 대화와 행동, 송사 과정의 묘사에 집중할 뿐,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상황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부자는 호령이 서리 같아 두려움을 느꼈으며, 직접 항의하다가 '관전 발악'으로 몰려 패를 맞고 종신어혈이 생길까 봐 차마 소리 내어 항변하지 못하였다.

**오답 해설** ① 부자는 자신이 가진 정당함을 믿고 송사 결과를 낙관하여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으나, 관원은 이미 상대방의 뇌물을 받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② 부자는 실제로 친척의 빈곤함을 구제하며 덕을 베풀었으나, 뇌물을 받은 관원은 사실을 왜곡하여 부자를 향해 지친을 구제하지 않는 무도한 놀이라고 비난하였다. ③ 부자는 박람하여 구변도 있고 문자도 쓸 줄 아는 인물이었지만, 관원은 송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부자에게 관청의 체통을 어긋

난다고 일부러 꾸짖으며 권위를 내세웠다. ⑤ 부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였고, 평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던 관원은 호기심에 이를 허용하였다.

**3** 부자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 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의도는 송사와 관련된 형조 관원들의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 글의 '청길'과 '녹비에 가로할 자', <보기>의 '황금'을 통한 판결 약속은 모두 금력과 인맥이 법을 압도하는 부패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관원은 소홀한 원정 처벌을, <보기>의 '오소리'는 뇌물 수수 후 즉각적인 판결 약속을 보여 주므로 신중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 글의 '그놈'과 <보기>의 '사대췌' 모두 처지를 비판하거나 자비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④ 이 글의 '관원'과 <보기>의 '오소리' 모두 사적인 이익이나 관계에 휘둘리는 부패한 관리이다. ⑤ 이 글의 '부자'는 관원의 위세에 놀려 드러내서 항의하지는 못하며, <보기>의 '사대췌'는 판결 전 이미 관리와 결탁하므로 재판 무효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6** [A]에서는 제3자인 '그놈'의 패악을 고발하는 데 집중하나, [B]에서는 관원이 부자를 향해 '지친(친척)을 구제하는 도리'를 저버렸음을 근거로 부자의 무도함을 꾸짖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의 관원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A]는 관원에게 처우를 간청하는 발화인 반면, 오히려 [B]에서 관원이 부자에게 재산을 '놈'에게 '나누어 주라'며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④ [A]는 '그놈'이 집을 불태우려 했던 과거의 행적과 현재의 악행을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⑤ [A]의 발화자는 청자인 관원에게 극도로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보이며, [B]의 발화자인 관원 역시 부자를 꾸짖을 뿐 자신과 부자의 신분을 대조하여 우월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02 만흥

본문 346~35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남들이 비웃어도 '내 분(分)'이라 여기며 만족하고 있다.
- 03 말과 웃음이 없어도 산이 좋다는 것은 물아일체의 경지를 뜻한다.
- 04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 06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삼공'과 '만승'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08 화자의 천성을 하늘이 알아서 배려해 준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09 자신의 분수가 아니라 '임금 은혜'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⑤ 2 ④ 3 ④ 4 ③ 5 ④ 6 ① 7 · 대비되는 시어: '삼공', '만승'  
· 인용한 의도: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안분지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 자연과 속세를 의미하는 대조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화의 형식보다는 독백체가 사용되고 있다. ② 색채 대비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점층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는 자연에 대한 일관적 인식을 보일 뿐,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2** <제3수>에서도 '반가움이 이리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띠집'과 '보리밥 킷나물'은 모두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② '그 모르는 남들'은 속세의 가치를 긍정하는 세상 사람들을, '삼공'은 높은 명예라는 속세의 가치를 의미한다. ③ 반가운 사람이 온다 해도 이보다 반가울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과,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다는 것 모두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하늘이 내린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6수>에서는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3** '비길 곳이 없으랴'는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서 강조 한정의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띠집'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이므로, 작가가 은거했던 공간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② '보리밥 킷나물'은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므로 청빈한 삶을 지향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③ '부러울 것이 있으랴'는 속세에 대한 부러움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며, 신하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제3수>의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이리하랴'는 '뫼(자연)에 대한 반가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임'과 거리감을 두려는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남들'은 화자를 비웃는 존재로서, 화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존재들이기에 거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여남은 일'은 속세의 가치로서, 화자는 이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한다. ④ '임천'에서의 '한흥'은 '만승', '삼공'보다 의미 있는 것이기에 화자와 '임천'은 친화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⑤ 화자는 '강산'과 같이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임금 은혜'라 생각하기에, '임금'과의 친화적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그리던 임'이 온다 해도 '면 뫼'를 바라보는 것보다 반감지 않을 것이라는 비교를 통해, '면 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①과 ② 모두 화자에게 만족을 주는 자연을 의미한다. ② ①과 ② 모두 인격 수양과는 거리가 멀다. ③ ①과 ② 모두 지난날을 성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⑤ ①과 ② 모두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6** <보기>는 국화를 '너'로 의인화하여 국화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제4수>에서는 '삼공', '만승'과 '임천 한흥'을 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춘광'과 '엄상'을 대조하고 있다. ③ <보기>의 '춘광'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것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보기>이다. ⑤ <제4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 03 장춘정기

본문 352~358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글쓴이 자신의 삶에 대해 쓴 글이 아니다.
- 08 하늘의 성정과 사람의 성정을 대조하면서 차이점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유사함을 설명한 것이다.
- 12 유증한이 '장춘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장춘부'를 근거로 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장한 것이다.
- 14 장자의 말을 인용하여 유증한의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17 유증한이 글쓴이의 말에 수긍한 것은 맞지만, 문답 내용을 정리하여 기문을 작성한 사람은 글쓴이이다.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② 5 ③ 6 군자와 소인의 태도를 대조함으로써 군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7 봄, 측은지심

- 1 글쓴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울러 내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여 장춘정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에서 유증한의 부탁을 받고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③ 유증한과 글쓴이의 문답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④ 유증한은 소동파의 시를 인용하여 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글쓴이는 장자의 말과 회암의 말을 인용하여 봄을 간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장춘'이라는 정자의 이름에서 비롯된 생각을, 유증한에게 군자의 자세를 당부하는 내용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 2 봄의 기운이 사계절을 관통하는 이치와 측은지심이 모든 마음을 관통하는 이치를 연결 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정을 관통하는 것은 측은지심이라고 보았으므로, 봄의 기운이 사람의 성정을 관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봄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봄기운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의 정자를 장춘정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봄은 사월이 지나면 사라지니, 어찌 그대의 정자에 간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유사한 예로 들고 있다. ③ '공명과 부귀,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없어지기 쉽고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붙잡아 두기에 부족하'므로 '간직해서 무엇 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세속적 욕망이나 소유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⑤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서 '봄'과 '인(仁)의 이치를 연결 짓고 있으며, 그러면 '간직할 수 없는 봄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 '이 점을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라며 이치를 대하는 군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3 [A]는 천지의 조화와 이를 대하는 군자의 자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은 유증한과의 대화에서 글쓴이가 취하는 관점의 전제가 되며, 글쓴이가 '봄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다'는 점을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라고 유증한에게 당부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유증한과 갈등하고 있지 않다.

- 4 ㉠은 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유증한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봄이 곁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은 유증한, ㉡과 ㉢은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과 ㉢은 봄을 간직할 수 없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④ ㉠은 배를 끝자리에 간직하고, 산을 못에 간직하는 것과 같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하려는 행동은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⑤ ㉢은 봄에 생긴 기운이 사계절을 관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5 ㉢은 물음의 형식을 빌려 유증한의 어리석음(간직할 수 없는 봄을 간직하려는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모두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은 ㉢뿐이다. ㉢은 유증한이 정자의 이름을 '장춘'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②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실의에 해당한다. 즉, 천지의 조화를 거스리고 젊음으로 남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세속적 소유를 간직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물음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⑤ '이 점을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라는 당부를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전달한 것이다.

### 04 너무 큰 나무

본문 359~36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서술자의 현재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대조적 소재는 찾을 수 없다.
- 05 아저씨와 관련된 일화가 삽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과거에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8 '나'는 아저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지만 '아, 모르겠다.'라며 혼란스러워 할 뿐 명확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11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월급 문제를 꺼낸 '나'에게 참으라고 하였을 뿐, 아저씨를 설득하지는 않았다. 또한 심순이를 언급한 사람은 아주머니가 아니라 '나'이다.
- 17 '천방산'의 경험을 떠올린 것은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여도 실제로는 뒷동산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불편함과 관련이 없다.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③ 4 ② 5 ② 6 전화 7 · 비유하는 대상: 아저씨 · 제목의 의미: 큰 나무의 밑둥에서 나무 꼭대기가 보이지 않듯이 아저씨의 정체를 알 수 없다.

- 1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아저씨에 대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일화로 제시하면서 아저씨의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아버지씨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여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에 대한 태도를 의정하고 점잖으면서도 집에서는 경박하게 구는 모습 등을 통해 드러날 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에는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일부 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나’의 독백적 진술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천방산’은 아버지씨에 대한 비유로 등장한 것일 뿐, 실제 공간적 배경은 아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대한 서술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일화 중심의 삽화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은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아버지씨는 아주머니에게 ‘나’가 월급을 올려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잘 달래서 파둑거리라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야박하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 구슬려서 설득하라는 것이므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교언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일랑거리는 태도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 아버지 내외는 수시로 선물을 싸 들고 아버지보다 높은 분들을 찾아갔으므로, 평소 애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첨하며 뇌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아버지씨는 사회에서는 점잖은 지식인의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경망스럽고 가족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④ ‘건강부회’는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춘다는 뜻이다. 아주머니는 높은 사람에게 바싼 뇌물을 바치면서도 월급을 올려 달라는 가정부의 말에는 옆집은 부자라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⑤ ‘호가호위’는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타인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다. ‘나’는 아버지씨를 찾는 전화를 받으며 ‘덕분에 나도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며 점잖은 떨고 있다.

**3**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시점과 동일한 위치에 머무르기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나’는 ㉠에서 ‘나무의 꼭대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씨를 곁에서 지켜보며 아버지씨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란을 느끼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독자는 ‘나’의 서술을 토대로 아버지씨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위선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감상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아버지씨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아버지씨의 ㉠과 같은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과 같은 아버지씨의 지식인으로서의 점잖은 모습과 상반된 것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본 아버지씨는 ㉠과 대비되는 뒤통산의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낸다. ④ 아버지씨는 ‘큰 나무’에 비유되고 있으며, 그 나무의 밑동에 서 있는 ‘나’는 아버지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며 아버지씨를 ㉠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나’는 아버지씨의 정체에 혼란을 느껴 ㉠처럼 말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작가의 의도이며, 독자는 ‘나’가 ㉠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4** [A]에서 서술자는 잡지에 실린 아버지씨의 기사를 통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증시하는 아버지씨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B]에는 실제 생활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아버지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잡지’는 아버지씨의 사회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을 대비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나’는 아버지씨의 글을 읽다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에 ‘이게 아닌데’라며 의문을 가지게 되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B]는 ‘나’가 잡지를 읽으며 잡지의 글과는 다른 평소 아버지씨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잡지의 글은 세상을 살아가는 소통의 윤리와 가정에서의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모습과

는 관련이 없다. 또한 [B]에서 아버지씨의 모습은 잡지와 다르게 전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할 뿐 비합리적인 면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잡지에 글이 실린 것이 아버지씨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B]에서 아버지씨의 모습은 가족과도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할 뿐 이기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잡지를 읽던 ‘나’는 평소 태도와 다른 아버지씨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지만 아버지씨를 가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아버지씨의 모습은 잡지의 글과 상반된 모습일 뿐 아버지씨에 대한 ‘나’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고 있지 않다.

**5** <보기>는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게짓 장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남들 앞에서만 어려운 말을 쓰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학적인 세태를 비판할 뿐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은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지식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남들 앞에서만 어려운 말을 쓰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밖에서는 점잖고 의정하지만 집에서는 전화가 오자 경박스럽게 자신의 전화인지를 확인하는 아버지씨를, <보기>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게짓 장수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대상인 아버지씨는 잡지에 글을 쓰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사이다. <보기>의 대상인 게짓 장수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지식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은 ‘나’의 시각에서 관찰된 모습을 독자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뿐,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씨를 비판하는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기>는 ‘거북이 웬지 말고 게짓이라 하렴은’이라며 대상의 현학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다. ⑤ 이 글은 아버지씨 집의 가정부인 ‘나’가 아버지씨를 지켜본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보기>는 게짓 장수와 화자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5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본문 368~37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7 감탄사 ‘오’를 사용하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를 반복함으로써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다.
- 09 음성 상징어인 ‘톡’과 ‘쟁쟁쟁’ 등을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을 느끼게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① 2 ⑤ 3 ⑤ 4 ② 5 ⑤ 6 ① 여백, ① 안식처 7 화자는 마음의 짐 초가 다 사라진 뒤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1 이 글은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와 역설적 인식을 통한 깨달음의 인식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음성 상징어(‘톡’, ‘쟁쟁쟁’)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1연에서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2연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의 반복을 통해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과 같이 도치를 사용하여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게 한다.

2 3연의 1행에 ‘나’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여백에 대한 깨달음과 화자의 소망을 독백 체로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③ 화자는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기며 이 여백은 탄생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여백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④ 3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3 ㉔은 화자 자신이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4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은 갈등, 번잡스러움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소재로, 화자는 이를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번뇌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백을 불러일으킨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무덤에 잠드신’을 통해 대상의 부재를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이 여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여기지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④ 부재하는 대상이 ‘여백’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또 다른 탄생을 가져온다는 순환론적 인식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⑤ ‘네 발 아래로’ ‘고요한 여백’이 되고 싶다는 것은 어머니의 무덤에서 자신이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었듯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의미이다.

5 <보기>에서, 동양의 산수화에서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라 구름, 물, 안개 등과 같은 또 다른 사물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어 있지만 채워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북을 치면 공명이 빈 공간(여백)을 채운다. 따라서 ‘공명’은 ‘무언(無言)’이면서 ‘불언(不言)의 언(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㉔을 보면, 여백이란 쓸쓸한 존재이지만 부재 뒤에 생성된 ‘무언(無言)의 여백’이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는 것은 <보기>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06 사과발을 지나며

본문 374 ~ 379쪽

### 기본실력 다지기

01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이별 이후의 상실감과 극복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03 심표를 사용하여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과정과 이별한 대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것을 형상화하였다. 즉,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감정을 나열하거나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06 ‘휘어진 빈 가지’ 등은 이별 이후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8 이별을 수용하기 전에는 ‘무거움’의 정서가, 이별을 수용한 이후에는 ‘가벼움’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⑤ 5 ① 6 ‘사과 한 알은 그리움, 미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미련을 접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1 3연에 사용된 ‘아’라는 감탄사는 이별한 상대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인정하고 난 후에 무거움과 어두움이 환함과 가벼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감탄사의 사용은 화자가 새로운 인식, 즉 이별을 수용한 후에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 순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내려놓았구나’, ‘가법했구나’ 등에서 ‘-구나’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상실과 이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연쇄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이별에 대한 수용과 극복을 노래하고 있을 뿐, 특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관계가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출발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적 상황 인식이 드러난다. 반어적 표현이나 화자의 반성적인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적 대상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2 ㉓는 1연에서 3연 2행까지이고, ㉔는 3연 3행에서부터 5연까지이다. ㉔에서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을까’라 한 것은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화자가 상대와의 이별을 수용했기 때문일 뿐 부재의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즉, 이 글 전체에서 부재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가 바뀌는 이유는 화자가 이별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 시적 대상인 ‘나비가 낮게 나는 이유’가 ‘가을엔’이라고 하며 계절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② ㉔에서 ‘휘어진 빈 가지’는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서도 퍼지지 않고 있다. 화자는 이를 보고 ‘아직 짙어질 게 남았다는 듯’이라고 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무게와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④ ㉔에서 화자는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라고 하며 이별을 수용한 후에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지고, 자신의 삶의 무게가 나비의 날개보다 가볍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의 정서가 마음의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정서가 한없이 무거웠지만, 이별을 수용하였을 때는 정서가 나비의 날개보다 가벼워진다.

3 ‘뽕뽕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는 화자 자신의 ‘백결(百結)의 옷’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무결한 나비의 날개보다 누더기가 된 고단한 자신의 삶이 더 가볍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비의 날개’를 이별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휘어진 빈 가지’는 대상(열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열매를 다 내려놓았는데도 퍼지지 않는 것은 화자에게 대상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② 열매를 다 떨근 빈 가지의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이의 존재감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보기>에서 부재의 표상은 상실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화자가 대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부재로 인한 상실의 감정은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이별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⑤ ‘뽕, 떨어지는 사과 한 알’은 사과가 가지에서 분리되는 순간을 강조한 표현으로, 화자가 마음에 남아 있던 대상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4 ㉔은 열매를 모두 떨근 뒤에도 가지가 휘어진 채 남아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별로 인해 상실이 이미 발생했으며,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이미지로, 이별의 결과이자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는 대상으로, ‘잠시 없었다 날아’기는 모습을 통해 이별을 수용하게 하는 인식 전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이별을 수용하여 가벼움의 정서로 전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별의 수용과 극복을 형상화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대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상실과 아픔을 형상화한 것일 뿐, 이별에 대한 극복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은 이별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줄 뿐,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지는 않는다. ㉠은 화자의 정서적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을 종식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 이별한 상태나 화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별 이후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별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 이 글은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마음에 무거움을 지니고 있다가 관계의 종결을 수용하며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별의 감정이 점차 완화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는 시간의 경과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별의 감정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은하수’는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화자는 ‘면도날 위라고 된고 건너가 만나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이 글에서는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부재하는 열매의 자리인 ‘허공’이 실제 열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깊게 묘사하고 있다. <보기>에는 역설적 상황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는 이별의 수용을 통해 심적 가벼움을 느끼는 반면에, <보기>에서는 ‘이별은 끝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감탄형 어미 ‘-구나’를 반복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 길다’, ‘~한다’라는 단정적 어투를 반복하여 이별을 끝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07 금환기봉

본문 380~38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이 글에서 이영이 고사 속 인물인 굴원이 물에 빠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장선빙이 물에 빠져 죽으려는 이유를 묻기 위해 언급한 것이지, 장선빙을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 07** 이 글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배 안, 궁궐, 이영의 집 등이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공간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 08** 이 글에서 인물 간 대화는 드러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또한 뚜렷한 인물 간 갈등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 11** 어떤 노인이 장선빙이 왜 죽으려 했는지 묻자, 장선빙이 액운을 면치 못하였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장선빙이 액운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16** 장선빙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자 설랑과 영춘은 놀람과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 뒤 장선빙이 과거에 급제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므로, 걱정이 앞섰다고는 할 수 없다.

### 대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⑤ 4 ④ 5 ⑤ 6 ⑤ 7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마 보지 못하였다. 8 환혼주는 장선빙의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 ‘궁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내려와’, ‘표연히 구름에 싸여 가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선빙과 이영의 대화, 장선빙과 설랑, 영춘의 대화가 드러나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배 안’, ‘궁궐’, ‘이영의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지는 않고 있다. ④ ‘얼굴은 흰 옥을 꺾아 교묘하게 ~ 신선의 기질이 있었다.’를 통해, 장선빙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 장선빙의 비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부정적 면모를 부각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지,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다.

**2** 장선빙은 상소를 올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임금께 요청하였고, 임금은 장선빙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자영을 청구후로 추증하였다. 즉 임금은 죽은 장자영의 죄를 없애면서 청구후로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장자영이 이미 죽었으므로 임금이 장자영을 유배에서 풀어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오늘 아가씨의 목숨이 ~ 구하고 돌아갑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임금은 장선빙과 김희경의 모습을 직접 본 후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 없으며 그 돌을 모두 쓰겠다고 신하들에게 말한다. 임금의 말에 신하들은 국가의 큰 행운이라며 어찌 뜻을 거스르겠냐고 대답하며 이를 따르고 있다. ④ 장선빙은 이영에게 자신을 장자영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설랑과 영춘은 장선빙이 장원 급제하자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한숨을 내쉬며 장차 어찌할 것인지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3** [A]에서 장선빙은 자신이 장원 급제하면 아버지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고, 이름도 후세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선빙은 앞으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에서 김희경은 과거 시험장에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장수정이 호명되자 자신이 예전에 장자영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린다. 따라서 김희경은 자신과 혼인을 약속했던 장선빙이 말했던 사실과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4** 과거에 급제한 장선빙이 장 상서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김희경은 장 상서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김희경은 장자영의 아들이 장선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전에 알고 있던 장선빙을 재회한 것에 대한 반가움의 심리를 드러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사건 전개에 신비감과 환상적 성격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장선빙이 왜 죽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영의 말로, 이영은 역사 속 인물인 굴원을 들며 장선빙이 죽으려 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장선빙과 설랑, 영춘이 서로 살아 있는 것을 알고 서로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장선빙은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주는 일이 장선빙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 ‘어떤 노인’인 이영은 물에 빠진 장선빙을 구해 주고, 장선빙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있으므로, 장선빙에게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임금’은 장선빙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바라자, 그 즉시 장선빙의 아버지 장

자영의 억울함을 풀어 청주후로 추증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은 장선빙의 바람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 영춘이 김희경과의 ‘당초의 맹약’을 어질할 것이냐고 묻자, 장선빙은 김희경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춘과 장선빙의 대화를 통해 장선빙이 ‘당초의 맹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남해 용왕’은 초월적 세계에 속하는 인물이므로, 초월적 인물이 장선빙을 돕는 조력자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② 장선빙이 ‘기상이 능률’하고 ‘신선의 기질’을 지녔다는 것은, 장선빙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장선빙이 자신이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던 이유를 ‘액운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장선빙의 아버지인 장자영이 모함을 당해 죽게 된 일은 장선빙에게 닥친 액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선빙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당해 죽게 된 것은 장선빙이 겪는 고난이라 할 수 있다. ④ 남복을 입고 과거에 참여한 장선빙은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주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과거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선빙이 남정하여 과거에 참여한 것은 과거 급제라는 장선빙 개인의 성취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08 산이 날 에워싸고

본문 387~39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에는 대조적 이미지의 병치가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자연물들이 제시되고 있다.
- 03** 시적 대상인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물은 변화하지 않으며, 화자의 삶의 태도가 점층적으로 자연과 동화되고 있다. 또한 담담한 어조를 통해 달관적 성격을 드러낼 뿐,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 05** 화자의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조적, 달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뿐, 정서가 전환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자연물인 ‘산’을 의인화하여 화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명령형으로 권유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내신 5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③ 4 ④ 5 ④ 6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1** 이 글에서는 ‘산’이라는 자연물에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하여 ‘산’이 화자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명령형의 권유를 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산’이라는 공간에서의 생활상, 즉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 ‘아들 낳고 딸을 낳고’ 등은 나타나 있지만, 대조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화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의 대상은 순수한 자연 세계인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산이 화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뿐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자연 친화적이고, 관조적인 성격을 띠며 역동적인 분위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한다’라는 종결 어미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담담한 어조를 드러낼 뿐,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2** [C]에는 ‘그름달처럼’ 죽음마저도 받아들이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초월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속세를 초월하는 정신적 달관의 삶이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초월한 삶의 모습일 뿐, 죽음 이후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산’은 화자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B]는 [A]에서 나아가 자연 속에서 정착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산’은 화자에게 들쭉거리고 쑥대밭처럼 소박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④, ⑤ 이 글은 각 연에서 삶의 모습에 변화를 줄으로써 점차 자연에서의 삶이 고양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층적으로 화자와 자연과의 동화가 나타나면서 자연 속에서의 평화롭고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3** 1연에서 ‘씨나 뿌리며’, ‘밭이나 갈며’는 자연에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1연에서의 ‘이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시의 주제가 어긋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산’은 화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주는 존재로, ‘-아라’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에게 삶의 태도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산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2연에서 ‘들쭉거리’, ‘쑥대밭’은 화려한 자연의 모습과 대조되는 소박하고 수수한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따라서 화자는 ‘처럼’을 사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름달’은 보름이 지나고 기울어진 달로, ‘그름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에서는 ‘처럼’을 활용하여 삶도 그름달과 같이 차오르면 언젠가 기울어진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에서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에 <보기>에는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등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보기>의 자연은 화자에게 가난과 고통을 명령하는 것으로 냉소적이고 억압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가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만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만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수미상관과 점층적 구조를 통해 초월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비극적 삶에 대한 절망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달관적이고 관조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보기>는 절망적이고 비애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5** 이 글의 화자는 ‘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지침을 얻고, 지침에 따라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산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산’을 통해 화자의 삶이 고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산은 화자에게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라는 말을 전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② 산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탈속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산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여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수수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⑤ 이 글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형식을 빌려 화자 자신의 지향점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산’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일체를 꿈꾸며 달관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이상이 실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09 흐름에 대하여

본문 393~398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 글은 자연에 대한 묘사보다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화자의 성찰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05 자연 풍경의 사실적 묘사보다 자연 이미지를 매개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07 화자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와 운명을 인식하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③ 4 ⑤ 5 ② 6 삶과 존재의 지속성,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의미와 가치 일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마주해야 할 인간 존재의 슬픈 운명

- 1 이 글은 ‘흐름’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의 의미와 숙명적 한계를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거나 대상의 역동적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색채 대비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⑤ 명령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 2 화자는 흐름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태도이다.

- 3 이 글에서 ‘흐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화자의 내적 성장과 존재 확장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흐름의 과정이 단순한 이동에 국한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화자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며, 자기 소멸을 통해 ‘바다’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는 자기 부정을 통해 더 큰 존재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 왜 슬플처럼 영롱한 것인지’를 통해 인간의 삶과 시간 속 성취가 비애적 정서와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의지를 ‘바다’와 ‘날개’와 같은 자연 이미지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4 [A]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누리던 자유와 생명의 조건은 사라지고 결국 홀로 남게 되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반복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긍정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죽음을 통해 자연과 합일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거부해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5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을 뿐, 자연을 관찰하며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고 싶다’, ‘바다에 가서’, ‘산으로 가느라’ 등을 반복하여 정서를 환기하고, <보기>에서는 ‘밀어 올려 다오’를 반복하여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삶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숙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운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사유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반면, <보기>는 화자의 시선과 체험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⑤ 이 글에서는 이상향(바다·자유)에 도달할 수 못한 채 소멸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10 한정록 서

본문 399~404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자연에 귀의하고 싶은 글쓴이의 소망은 드러나 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06 ‘모기나 파리 같은 자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13 ‘털끝만 한 이익이나 손해에 넣은 경황이 없었고’를 통해, 세속적인 이익을 완전히 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14 글쓴이는 현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지혜롭기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의 지혜가 현자보다 매우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③ 4 ① 5 ④ 6 글쓴이는 성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 관직은 고위 벼슬아치고, 직책은 임금님의 교서를 짓는 지리에 있기 때문이다.

- 1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한 사마자미와 방덕공, 상자평과 도홍경, 사강락과 백향산의 태도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숨어들고 싶겠는가?’, ‘고상한 척하겠는가?’ 등은 의문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자연이 쇠락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자연에 대한 옛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고사 속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④ ‘큰 기러기가 높이 ~ 매미가 하늘 벗듯이’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속세를 떠난 현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2 글쓴이는 자연으로 귀의하여 요순 같은 임금님과 결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을 뿐, 요순 같은 임금 밑에서 벼슬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여서 ~ 망령된 자들과 어울렸다.’를 통해, 글쓴이가 과거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금년 내 나이 벌써 ~ 나 자신의 꼴이 적이나 안타깝다.’를 통해, 글쓴이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반대로 권세를 좇는 길 ~ 넣은 경황이 없었고’를 통해, 글쓴이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글쓴이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훗날 숲 아래에서 세상을 버리고 ~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쓴이는 자연에 귀의하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는 계기꿈 서 있는 나무들이 만

들어 낸 공간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사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①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 즉 공동체적 삶이 존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술'으로 귀의하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③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② 역시 화자가 추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④ 현재 글쓴이는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⑤를 글쓴이가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⑥는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으로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⑥는 화자가 훗날 귀의하려는 공간으로, 글쓴이가 과거를 돌아보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는 화자로 하여금 왜 술이 될 수 없는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화자가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⑥ ⑤는 글쓴이가 훗날 귀의하려는 공간으로, 현재 글쓴이에게 삶의 깨달음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⑥는 화자로 하여금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4**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연을 대하는 옛사람들의 태도를 제시한 뒤, 자신은 그렇지 못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다. 따라서 옛사람과 대비를 통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회한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수확을 앞둔 사람들과 우뚝 선 해오라기와 달리 자신은 '홀로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거나 경외감을 표현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 글에는 글쓴이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서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에는 '요순이 다스리던 세상'과 같은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쇠락해 가는 삶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보기>에서는 결실을 맺는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5** 글쓴이는 자신의 군주가 요순 같은 성인이므로, 임금과 결별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 자신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귀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비'는 자연에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보기>에서 언급한 '한정'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추구하는 도가 풍속과 어긋나고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비 중에는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경우 세속을 버리고 자연으로 도피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칭찬이나 비방에 마음'이 '요동'친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마음은 자연에서 누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글쓴이는 조정에서 물러나 자연에 귀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고향**

본문 405~41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수해로 인한 소작료 감면 요구이다. 수해는 현재 벌어진 사건이므로 과거의 사건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06** 1920년대 말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수탈과 대립을 다루고 있을 뿐,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두레를 통한 상부상조 등은 전통적 가치관이 살아 있음을 드러낸다.

**12** 안승학을 찾아가 소작료를 면제해 달라고 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다.

**14** 길동 아버지는 겉으로는 안승학에게 유유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내신 G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④ 5 ⑤ 6 두레 7 · 원터 마을 소작농들의 처차: 농사를 망쳐 소작료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사건 전개에 미친 영향: 소작료와 관련하여 안승학과 갈등을 벌이게 됨으로써 주된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된다.

**1** 안승학이 소작인들을 '여간 괴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길동 아버지가 안승학에 대하여 '항상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시하는 등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길동 아버지의 과거 내력이 드러나는 부분을 회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내용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글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으로 당대 농민들의 비극적 삶과 자주 계층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을 뿐 희극적인 분위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인물의 말과 행동 역시 과장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④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갈등이 이완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장면의 전환이 갈등의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⑤ 제시된 장면은 원터 마을 농민들이 마을 안승학에게 소작료 탕감을 요구하고, 안승학이 이를 거절하고 있을 뿐, 신념이 변화하고 있는 인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중간 부분 줄거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주와 담판을 짓기 위해 상경을 했음을 알 수 있고, 희준은 안승학의 계락을 눈치채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 뿐, 안승학과 소작료 감면을 두고 담판을 짓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안승학은 학삼이에게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도록 하였고, 희준이 자기네의 행동을 학삼이가 내담하는 줄 눈치채고 있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이웃을 살렸는데, 이는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길동 아버지는 안승학을 대할 때 겉으로는 순순히 복종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남의 빛은 더 지더라도 며느리가 다치기까지 하게 방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재물을 사왔다'에서 알 수 있다.

**3** 안승학이 '벼가 익기도 전에 배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당장에라도 소작농들을 착취하고자 싶지만 벼가 수확기에 이르지 않아 그럴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중립적인 척하며 지주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이 '마름덕에 잘 말해서 소작료를 감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마을 안승학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소작농들이 민 지주와 소작료 감면에 대하여 담판하려 상경한 것으로 인해, 민 지주가 안승학과 소작농의 갈등을 눈치채고, 이로 인해 타작관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 안승학은 이에 대해 양심을 품고 소작농들을 버리고 있다. ③ 안승학은 소작농들의 흠시 모를 단체 행동을 '불온한 공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위에 있으며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고압적 권위의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민 지주는 마음 안승학과 소작농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짐작하여 타작관을 내려보내고자 한다. 이는 안승학이 지주와 소작농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음을 드러내며, 신뢰를 잃은 안승학의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A]에는 길동 아버지의 삶의 내력, 길동 아버지와 안승학과의 관계, 현재 회준에 대한 평가가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의 행동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승학과 회준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과거에 길동 아버지는 안승학보다 부유하였으며, 자체도 그리 떨어질 것이 없었지만, 패가를 한 후 안승학의 집에서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길동 아버지는 안승학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준에게는 호의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 ③ 길동 아버지는 안승학을 ‘후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 회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길동 아버지의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과거에는 길동 아버지가 안승학보다 잘살았으나 패가한 후 안승학 집에서 행랑살이를 하면서 하인처럼 부려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㉔에서는 ‘발을 끊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일 뿐, 인물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어쩔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상전이 벽해’가 되었다는 것은 변화가 심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수해로 인해 원터 마을이 심각하게 변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② ‘뚝뚝뚝’은 단단한 물건을 잇따라 두드리는 의성어로, 원터 마을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을 고치고 있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③ ‘꼴이 보기 싫다’는 싫어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욕심내는 행동에 대한 인동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안승학이 먼 서기인 자기 동생에게 회준과 소작인들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당부하는 것은 소작로 탐감과 관련하여 소작인들이 단체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12** 규수상사곡 / 임 그린 상사몽이

본문 413~41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인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편지글로 쓴 가사이다.
- 03**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뿐, 화자의 태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 06** 화자는 홀로 병이 든 상황에서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0**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11** 임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화자의 처지를 실술(귀뚜라미)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한 것이지, 궁핍한 처지를 비유한 것은 아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⑤ 4 ⑤ 5 ③ 6 ⑤ 7 ② 8** · 시어: 실술 · 공동된 역할: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으로, 임과 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1** 두 작품 모두 임의 부재로 인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의 분신인 자연물(‘실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임 그린 상사몽」이다. ③ 「규수상사곡」에서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 사용되었지만, 「임 그린 상사몽」에서는 특정 구절이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두 작품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점층적 구성을 취하지 않았다.
- 2** 화자는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상상으로 임이 자신의 마음에 화답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무리 허사인들 무단히 잊을까’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식물감미하고 침불안석이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 죽은 무덤 위에 네가 나를 찾아오며 너 죽은 무덤 위에 내가 너를 찾아가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목석이 아니어든 인정조차 없겠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 3** <보기>의 화자는 철석 같이 믿었던 ‘불경이부 굳은 언약’도 중요하나 결국에는 백 년도 못 살 남의 목숨을 끊게 할 수는 없다며 만남을 허락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기다리소서 금월 모일 밝은 달밤에 아무조록 보오리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목석이 아니거든 이러한 이 인생을 실마 죽게 하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백년가약 정할 적에 연분(緣分)을 따라가서 불경이부 굳은 언약 철석 같이 믿었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한 몸 때문에 병이 들어 누웠으니 심정을 허비하다가 불쌍히 죽게 되면 억울한 저 흑백이 내 닳으로 삼으리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화자는 자신이 든 병의 원인이 임에게 있으니 자신의 부탁을 들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을 뿐, 임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5** 화자가 ‘상사몽’을 통해 ‘임의 방’에 들어가 임을 깨우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적 상상으로 현실에서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다.
- 6** <보기>에서 화자는 겨울밤을 이불에 넣어 두는 비현실적 상황 설정을 통해 임과 오랜 시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임 그린 상사몽이」 역시 ‘실술’이 되는 비현실적 상황을 통해 임과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고,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반면 「임 그린 상사몽이」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지만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② <보기>에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두 시조 모두 임과의 과거 기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두 시조 모두 화자의 상상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7** 「임 그린 상사몽이」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을 잊고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오매불망 저를 그리워하며 잠 못 들고 있을 당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